



#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http://www.suna.or.kr

제 252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9년 3월 15일

[1]



장학금 수여식(커버스토리 5면)

## 선배들의 작은 정성...후배사랑은 한 아름

### 관악춘추

우리는 지난달 「위대한 서울대인」 한 분을 葬送했다. 諸廷珪(80년 社會大卒·국회의원)동문이다.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쓴 것은 비록 55년이라는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한 평생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도시빈민 등 소외계층과 애환을 함께하며 살아온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그는 실천적 지식인이었다. 72년 청계천 쪽방 판자촌에서 야학교사로 일하면서 「빈민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77년 판자촌에서 한 신부를 만난 뒤 철거민들과 함께 지금의 시흥시에 「복음자리 마을」을 세웠다. 시흥일대 달동네는 그가 직접 짚어 만든 블록이 들어가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 이 공로로 그는 96년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누가 뭐래도 그는 「위대한」의 찬사에 걸맞는 이 시대 우리들의 「보통

영웅」이었다.

같은 무렵, 미국에서 작고한 자선사업가 폴 벨런의 유서가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무려 5천여억원에 이르는 현금과 값을 알 수 없는 수백점의 명화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간 것이다. 생시에도 유산으로 받은 10억달러의 재산을 대학, 박물관, 환경단체 등에 익명

### 봉사하는 서울大人

으로 기부해온 그는 유서를 통해 남은 재산마저 쾌척했다. 한 사람은 돈이 많았기에 재력으로, 또 한 사람은 가난했기에 온 몸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他界했다는 점이 다를 뿐, 베풀고 나누는 삶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두 사람이 다를 바 없다.

부정과 패륜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희망없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게 아니냐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주위를 살피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 평생을 목수일과 샅바느질로 어렵게 모은 전재산 14억원을 서울대장학금으로 기증한 칠순의 노부부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준다. 서울대인 중에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다. 30년간 나환자들에게 3천4백여개의 틀니를 무료로 맞춰주고 지난달 은퇴한 치대 劉東洙교수도 그렇지만 한국과인 트리클럽 朴明潤(76년 保大院卒)총재는 5년간 하루 용돈을 5천원씩으로 줄여 저축한 5천만원을 곧 우리 총동창회에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영국 귀족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더라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의 일부를 사회에 되돌리는 봉사활동은 값지다. 갈수록 人性이 메달라 간다지만 그럴수록 우리 서울대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나누고 베푼다면 우리 사회공동체는 한결 밝아질 것이다. 〈仲〉

만든 사람

논설위원 : 金榮國, 孫一根,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東和, 李炯均, 南仲九, 宋鎮赫, 李年憲, 洪性萬, 丘月煥, 李成俊, 安炳燦, 李元護, 柳根榮 편집장 : 安興燮 기자 : 李美連, 金有信 광고부장 : 金千鶴



건국 이래 우리 사회에 각종 뇌물·부조리 사건 보도가 하루라도 빠지는 날이 없었던가 싶다. 허구 한낱 잡혀가는 지도급 인사들의 모습은 보기에 정말 안타깝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절망과 환멸을 심어 주는 부정 사건은 관계 당사자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나라와 국민 모두의 발전을 뒤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방송·신문에 출세하는 인사들의 소식을 보고 존경과 부러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정 사건의 주인공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이 출세하기까지 공들인 노력과 재능 그리고 역경을 헤쳐 온 용기와 힘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깨뜨려 버릴 수 있을까. 그 빛나던 얼굴들이 하루 아침에 범죄인이 되어 만천하에 까발려 지는 모양이란 분노를 지나 연민으로 안겨 오는 것이다.

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부조리의 범죄자로 전락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재산과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인재 하나 키워 내는데 드는 사회적 시간과 비용은 또 어떻게 셈해 볼 수 있겠는가. 참으로 아까운 일이다.

이런 제안은 어떨까?

받는 자 보다 주는 자를 중벌



李年憲  
MBC 제작본부장

에 처하라. 뇌물을 주는 자, 범죄를 유혹하는 자, 부조리 동기를 만드는 쪽을 가혹하게 벌주자. 이들이 없었으면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인재들의 회생을 막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는 손목을 쳐라. 받는 자는 생기는 맛에 범죄 하지만 주는 자는 손목을 끊겨 가면서 범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받는 죄 보다 주는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을 알게 하라.

받는 일은 수동적이지만 주는 일은 능동적이지 않은가. 훌륭한 인재들이 단 한 번의 유혹에 일생을 망치는데 비해 유혹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은 여름밤에 도깨비처럼 활발하며 잘도 살아간다.

발본색원을 외치며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 온 결과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많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질량불변의 법칙인 양 범죄 양상이

끊이질 않으니 법률가들께서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본보 논설위원)



시카고 지부

## 18년간 장학사업에 자부심

글 : 李勝子(64년 師大卒) 편집간사

시카고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육, 예술, 문화 및 상업의 도시라는 것은 직접 방문해 보지 않고는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미시간 호수가에 위치한 시카고는 바다처럼 끝이 없는 호수에서 바라보면 물위에 뜬 것처럼 신비스럽게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호수가에 앉아 낚시를 드리우면 보통 30근 내지 40근 정도의 연어를 잡을 수 있어 잘 잡는 사람은 서너 마리를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잡기도 한다.

시카고 이민 역사는 1910년 한일합방에 이어 1913년에는 이미 흥사단 지부가 결성되었고, 李承晚 초대 대통령이 미시간 호수가에 위치한 호텔에서 조선 독립을 위한 강연회를 갖기도 한 우리 조국의 독립과는 분리할 수 없는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하다.

1960년 이래 시카고 지역엔 약 1천여명의 학생과 한인들이 체재해 있었고, 60년말과 70년 초에는 이민인구가 대폭 증가했다.

또한 70년 중반과 80년대에는 한인 타운이 건설되어 교회는 물론 가발가게, 옷가게, 주유소, 정비소, 식당 등이 생기게 되고 여기저기서 세탁업소들을 경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로렌스」街는 「서울거리」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바뀔 정도로 한인들의 집중 상가이기도 하다.

몇 년전만 해도 시카고 지역 한인 인구는 7만여명 정도였으나 얼마 전 시카고 시장 대담회에서 한 한인 인사는 시카고에 한인 선거 투표자의 수가 12만이 훨씬 넘는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시카고지

부는 李基億(47년 文理大卒) 초대 회장의 역사적인 시작으로 창립된 지 어언 18년에 접어들었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회원 및 그 사업 범위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회장단의 헌신적인 노고의 결과로 현재 시카고지부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시카고지부는 현 具璟會(65년 醫大卒) 회장을 선두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과 장학사업으로 후배 육성」의 정신하에 모든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시카고지부는 회원가족도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다수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수시로 모이는 임원회 및 이사회를 비롯하여 춘계 골프대회, 추계 골프대회, 하계 야유회, 음악감상회, 장학금 모금기념음악회, 정기적인 동창회보 발간, 주소록 발간, 모교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시카고 방문시 개최하는 간담회 등이 시카고지부의 주요 활동이다.

또한 시카고지부는 장학선발위원회, 장학금 모금위원회와 장학금 관리위원회를 두고 매년 정수의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후배양성의 사업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연말 총회와 파티는 회원들간의 전통적인 모임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앞줄 좌로부터 네 번째 필자, 필자 뒤 具璟會 회장

## 서울대인이여! 이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우리 총동창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희망을 함께 하고 믿음을 나누는 서울대인이 되어 봅시다.

모교인 서울대학교가 새 Millennium을 맞아 세계의 대학으로 발전할 기원과 노력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정기총회 안내

●일 시 : 1999년 3월 19일(金) 오후 6시 30분

●장 소 : 하얏트호텔 1층 그랜드볼룸

●순 서 : 1부 행사

2부 행사

1. 동창회장·모교총장 인사
2. 제1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
3. 신입회원 환영사·답사
4. 안전심의(98년 동창회 결산·감사보고)
5. 보고사항

1. 만찬
2. 우수지부 및 유공동문 표창
3. 기념공연

●창립 30주년 기념품 증정

●회 비 : 2만원

※동창회 제139차·관악회 제77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개최전(오후 5시) 하얏트호텔 2층 로터스룸에서 개최합니다.

※교통편 : 시내버스 79-1, 83, 83-1

하얏트호텔 셔틀버스 서울역 대우빌딩앞 오후 6시, 6시 15분 2회 운영

## 추억의

## 窓

자주 시동 꺼진 통학버스  
인사동 뮤직홀 눈에 선해

金德基(56년 商大卒)펜타항공 사장

이탈리아의 명가수 FERRUCIO TAGLIAVINI는 1940년부터 1950년대 초반에 걸쳐, 그의 노래의 최전성기를 이룩한 세계적인 명테너이다.

그의 노래는 인간이 간직한 목소리의 예술로서는 극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의 노래는 듣는 이에게 아름다운 마음, 감사의 마음, 희망의 기대를 흠뻑 안겨준다.

나의 학창시절인 1950년대에는 그 외에도 많은 성악가들이 즐비했다. 널리 알려진 GIUSEPPE DI STEFANO, MRIO DEL MONACO 등은 당시의 오페라를 크게 빛낸 훌륭한 테너들이다.

그들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른 음악성과 면모를 보여 주곤 했다. 특히 DI STEFANO의 감미로운 음과 MONACO의 폭풍우같이 터져 나오는 찬란한 트럼펫의 반짝이는 음색은 그 시절 베르디의 아이다나 오셀로 등의 가극을 관람하는 모든 이들을 매료시켰다.

그 시절 학교 부근에는 이러한 음악을 들을 만한 공간이 적었다. 그래서 항상 먼 거리를 나와 음악을 감상하곤 했다.

특히 당시엔 학교 통학 버스가 2시경 월곡동의 교정앞에서 출발해 성동역(지금의 용두동 미도파 부근) 앞까지 운행했다. 버스는 엉터리 제품이지만 상대마크를 그려놓아 제법 외형은 깨끗했다. 그러나 차를 기다리던 학생들이 너무 많아 버스가 터질 것

같이 매달려갔다. 걸어가면 20~30분 정도 걸릴 거리여서 차편이 매우 아쉬웠다. 그러나 자주 고장이 나서 도중에 하차하여 밀고, 시동을 거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는 걸어서 성동역 앞까지 나오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그렇게 나와 인사동에 있는 르네상스 뮤직홀(레코드 감상실)에서 앞서 언급한 음악들을 들곤 했다.

당시 세계의 많은 예술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 공연을 가졌다. PAVAROTTI, DOMINGO, CARRERAS 등도 서울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이를 접할 즐거운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졌다.

그때의 공연 모습이 아직도 내 머리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감동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늘 조용한 이밤에 이들 예술가의 노래를 듣고 있다. 근대 가수들의 상업성의 염증에 비하여 너무나도 진지하고 참된 그들의 노래는 지난 학창시절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곤 한다.



56년 학교 교정에서, 뒷줄 우측 첫 번째 필자



여성학자 朴惠蘭동문

## 남편·세 아들 「각자 잘 살자」 최선 다해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자랍니다. 내 아이는 꼭 의사나 관사를 만들겠다는 맹목적인 부모의 욕심만 없다면 아이들은 사랑으로 커가고 신뢰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여성학자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朴惠蘭(69년 文理大卒)동문과 가족이 유명해진 것은 아마도 남성듀오 패닉의 멤버이자 싱어인 이 적(본명 李東俊 92년 社會大入 休학중)군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朴동문이 96년 출간한 수필집 「믿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웅진출판)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 일 것이다.

평소 아이들은 믿는 만큼 자란다는 소신을 가진 朴동문에게 아들 3형제가 모두 모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남들에게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학교 공부하는데 정말 별다른 도움

을 주지 못했어요. 가장 큰 도움이라면 다른 엄마들처럼 공부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은 것과 우리 부부가 닥치는 대로 사 모은 책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하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뿐입니다.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일까? 차남 李東俊군이 가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도 가족들 중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가족이기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종종 집으로 찾아오는 팬이나 언론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지만 李東俊군의 독립으로 금세 해결되었다고 한다.

신중하면서도 부드러운 장남 李東勳(94년 工大卒)동문은 현재 삼성물산건설부문에 근무 중이며, 창의적이고 속이 깊은 차남 李東俊군은 일찍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가수의 길을 가고 있다. 또한 밝고 명랑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막내 李東潤(95년 社會大入 休학중)군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한다.

여성적인 언어인 불어를 전공한 남편 李相德



앞줄부터 시계방향으로 李東勳·李相德·李東俊·李東潤·朴惠蘭동문

(68년 文理大卒)동문과 남성적 언어인 독어를 전공한 朴동문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남편은 사업과 일에 매진했으며, 아내는 뒤늦게 여성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朴동문의 경우 1987년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0여년 동안 전국의 대학을 돌며 여성학을 강의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朴동문은 『여성학과 여성문제 연구란 바로 다양한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인간 전체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현재 朴동문은 각종 청소년과 여성관련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바쁜 어머니와 아내를 둔 자식과 남편은 불만이 없었을까?

『우리 집 가훈이 바로 「각자 잘 살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 전체가 저절로 발전하고 화목해집니다』

朴동문 가족들은 바쁘고 자유분방한 생활속에서도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있다. (美)



## 교육 풍토의 개선은 누구 손에 달려 있나?

金智子(63년 師大卒)서울교대 교수



나는 걸스카우트 서울연맹장 자리에서 이제 막 1년의 세월을 보낸 셈이다. 그간 바쁜 일정 속에 학교와 걸스카우트를 오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희열 그리고 답답함과 아픔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론과 실재는 참으로 그 간격이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나는 모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대학원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사회 교육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논문을 썼다. 또한 국립 필리핀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지역 사회 개발과 발전 커뮤니케이션을 각각 전공과 부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어찌 보면 반평생을 교사 교육 및 사회 평생교육의 연구와 가르침을 위해 바쳐온 셈이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발을 들여놓은 걸스카우트의 일은 소녀와 여성의 사회교육의 현장이란 점에서 이제까지의 이론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사회교육의 현장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그간의 노력들이 얼마나 어설픈 외부자적

관찰에 지나지 못한 것이었던가 몸으로 느끼면서 사회교육뿐 아니라 교육대학이라는 초등교사의 양성 기관을 통해 제시해 왔던 그 많은 주장들이 그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홍익인간의 이념에 바탕을 둔 교육관과 인간관 그리고 직업관 등을 신조처럼 되뇌어 왔건만 오히려 편협된 출세관과 물질만능적 이기주의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귀히 여기자는 발상도 어렵없는 이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현 정부는 제2의 건국이란 기치를 내걸었다. 국민의 의식 전환을 통해 국제사회에 걸맞은 세계 시민적인 생활 태도와 삶의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정부의 뜻을 이어 받아 교육부에서는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한 다각적인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로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 운영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학부모 교육 강사진을 새로이 편성하여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위한 순회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이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선두 지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아마도 걸스카우트와 같은 소년, 소녀 단체들의 위치와 참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 모교 李應白 명예교수의 思婦曲

### 사별한 아내 기려 네 번째 문집 펴내



다시는/ 죽어도 너의 곁/ 안 떠나리/ 이제는 / 죽어도/ 너와 함께 있으리/ 그대 그림자/ 그대 따르듯/ 나도/ 그대 그림자 되어/ 죽어도 너의 곁/ 안 떠나리/ 차림자/ 되었든들/ 이리도/ 그리운 마음/ 아니도 / 애달프련만.

—「네 번째 永遠한 꽃의 香氣—蘭香竹情」中 「그림자」, 閔瑛媛 作—

죽은 아내의 古稀를 맞아 네 번째 기념문집을 펴낸 老學者 李應白(49년 師大卒·모교 명예교수·(사)한국어문화 이사장)동문의 애절한 思婦曲이 우리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을 던지고 있다.

지난 93년 지병인 간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故 閔瑛媛여사를 그리워하며 아내의 周忌마다 문집을 펴낸 李동문은 94년 「永遠한 꽃의 香氣」를 시작으로 95년 「續 永遠한 꽃의 香氣」, 96년 아내의 호를 딴 문집 「慧櫛의 붓자취」를 발간했다.

특히 이번 문집 표지에는 서예전시회를 갖고 싶어했던 아내의 소원을 잊지 못해 아내가 직접 쓴 백련사(무주 구천동) 원통전의 현판과 함께 혼인의 예를 올렸던 창경궁 경춘전의 모습을 표지에 담았다.

이 책에는 자신과 아내의 시·산문·기행문·일기와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추모의 글 등을 비롯해 그동안 낸 추모문집 전반에 걸친 소감, 아내를 회고하는 글들, 아내의 법문 기록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다.

『부부라는 것이 전생애 기록으로 정해진 인연에 따라 산다면 헤어짐도 미리 정해져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백년해로라는 말은 일생을 건강

하고 행복스럽게 함께 산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70세까지 소원했던 집사람이 65세하고 이들을 사는 동안 나와는 44년 6개월을 부부의緣으로 살았습니다. 생전에 그 건강치 못한 몸으로 집안 살림 틈틈이 나를 위해 지성껏 봉사했던 것을 생각해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永遠한 꽃의 香氣—蘭香竹情」서문中—

李동문은 1949년 閔瑛媛여사와 중매로 만나 결혼했다. 단칸셋방에서 어렵게 시작한 신혼살림이었지만 서로의 결혼을 축복하는 기념문집을 낼 정도로 두 사람은 情이 좋았다. 「제비」라고 명명된 문집은 비록 1~3호까지 발행되었지만 어려웠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남편의 졸업식을 위해 자신의 치마를 뜯어 타이를 만들었던 아내, 털실로 남편의 조끼를 뜨던 알뜰한 모습, 아픈 몸을 이끌고 남편의 교회 잔치를 훌륭히 치러낸 정성, 南美 여행을 함께 가자 해놓고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린 야속한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李동문.

『부인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처지에 무슨 인연을 맺겠느냐』며 續絃을 권하는 사람들의 권유를 깨끗이 거절하는 李동문의 모습을 보면 헤

어 짐 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불륜이 난무하는 요즘 시대에 부부의 소중한 인연을 다 시금 생 각케 한다. 〈美〉



84년 2월 아내와 함께

## 2백32명에 장학금 2억5천여만원

金회장 “철학적 사고·유머·기백을 갖자”



그림 비서실 金柱濤사장, (주)일성 俞益善부사장, 수산중공업 黃俊基부사장, 동창회 李世震사무총장, 모교 徐鎭浩교무 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姜信愛(음대 4년) 양이 李潤炅(음대 4년) 양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님이 오시는지」, 「울게 하소서」 등의 축하를 선사했다.

한편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가 1백15명에게 1억1백32만3천5백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99년도 1학기 장학금은 총 2백32명에게 2억5천5백84만8천원이 지급됐다.

각 단과대학(원) 동창회에서 지급한 장학금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가정대동창회(회장 李義淑)=4명:5백52만8천원 ▲간호대 동창회(회장 楊銀淑)=6명:6백99만1천원 ▲법대동창회(회장 李奭熙)=낙산장학회 장학생 41명:3천7백31만원 ▲상대동창회(회장 張禮準)=향상장학회 장학생 30명:1천5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佑宰)=5명:7백97만5천원 ▲약대동창회(회장 李禮植)=5명:2백50만원 ▲음대동창회(회장 李南洙)=1명:1백57만5천원 ▲치대동창회(회장 金讚淑)=4명:7백31만6천원 ▲대학원동창회(회장 裴載湜)=4명:5백88만원 ▲행정대 학원동창회(회장 姜敏求)=3명:3백74만8천5백원 ▲환경대 학원동창회(회장 全錫洪)=5명:2백50만원 ▲국가정책과정 동창회(회장 金相賢)=7명:5백만원

본회(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9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李承權(경영대 경영학과 석사과정)군을 비롯한 1백17명에게 1억5천4백52만4천5백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金회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장학금을 모아준 동문 선배들의 훈훈한 정성을 가슴에 새겨 학업에 더욱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자신이 조국과 사회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철학적 사고와 유머를 이해하는 여유있는 마음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겠다는 기백으로 빛나는 청춘을 멋지게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崔主鎬명예회장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철학, 주관을 갖고 5천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분야를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徐鎭浩교무부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모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국가와 사회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며, 더욱이 동문 선배들의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 아닐 수 없다』며 『여러분은 공인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李承權군은 장학생을 대표해 『선배님들의 관심과 배려,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사회에 더 큰 빛이 될 수 있도록 진리탐구와 배움의 길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사했다.

이날 행사에는 崔主鎬명예회장,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부회장, 田溶星·宋斗灝·閔丙駿·洪性大부회장, 본보 孫一根·李炯均논설위원을 비롯해 관악회 白文基이사, 李吉女의대동창회장, 金讚淑치대동창회장, 鄭八道최고산업전략과정 동창회장, 아남

### 亞南 특지장학금

4명에게 4백50만원 수여



金柱濤사장(左)이 閔楠泓군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아남그룹(회장 金柱濤·54년 法大入·본회 부회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아남그룹 비서실 金柱濤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9학년도 제1학기 「亞南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96년 10월과 97년 2월 두차례

에 걸쳐 출연한 5억원을 본회에서 관리, 여기서 발생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朴賢培(경제학부 4년), 閔胡俊(경제학부 1년), 閔楠泓(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년), 金政佑(전기공학부 4년)군 등 4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50만8천원을 수여했다.

### 洪性大 특지장학금

7명에게 1천50만원 전달



洪性大이사장(左)이 鄭雲慶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洪性大(63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9학년도 제1학기 「洪性大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洪성문이 96년 2월과 97년 9월에 출연한 3억원을 본회에서

관리해 발생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許辛旭(경영학과 4년), 崔새롬(법학과 3년), 安棟俊(경제학과 3년), 鄭相鎬(응용생물학부 2년), 宋旻斗(의예과 2년), 宋燦雨(경제학부 1년), 鄭雲慶(의예과 1년)군에게 각각 1백50만원을 전달했다. 〈美〉

### 미술작품

李善媛 作



「문자도-梯」, 53×63cm, 실크스크린, 1998.

〈작가 약력〉

- △79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81~98년 개인전 8회
- △83년 동관화 10인전
- △85년 스페인 국제소형관화전
- △86년 79인의 서울전
- △87년 서울국제관화교류전
- △88년 서울 다큐이 작업전
- △89년 한국의 종이 요철전
- △90년 한지작가협회전
- △91년 서울프린트클럽전
- △93년 대전 Expo국제관화전
- △95년 비무장지대 작업전
- △97년 경기여고동문 초대전
- △98년 움직이는 미술관
- △현재 수원대 미대 교수

### 주요 목차

- 지부순례 .....2면
- 시카고 지부
- 서울대 가족 .....3면
- 朴惠蘭 여성학자
- 추억의 창 .....3면
- 金德基 펜타항공 대표
- 만나 보고 싶었습니다 .....6면
- 시민단체 간담회
- 화제의 동문 .....8면
- 李炳勳 소아과의원장
- 동문을 찾아서 .....11면
- 鄭健溶·金在哲동문

# 새 천년을 위해 「시민의 힘」 모을 때다

90년대 이후 각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각 시민단체 실무진과의 만남을 통해 그 운동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사회 李炯均(64년 文理大卒) 한국PR협회장·본보 논설위원

## 〈참 석 자〉

- 林春心(74년 保大院卒)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교육부장
- 朴聖圭(78년 師大卒) 「홍사단」 사무총장
- 崔廷漢(81년 人文大入) 「걸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총장
- 金西鎭(86년 師大卒)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기획실장
- 崔禮鎔(89년 工大卒) 「환경운동연합」 총무국장

사 회 : 90년대에 접어들면서 NGO(비정부기구)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민운동을 주도해가는 핵심멤버가 서울대인이라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선 각 단체의 특성을 소개해주시죠.

朴聖圭 : 1907년 島山 安昌浩 선생이 결성한 「靑年學友會」가 1913년 「興士團」으로 재창립돼 올해로 역사가 86년이 되었습니다. 발족 당시의 취지는 국민의 올바른 자질과 의식을 배양하여 독립자주국가의 기초를 닦고, 미래의 새로운 지도적 인재를 기르자는 것이었습니다.

홍사단의 최대 관심사는 민주 시민 교육의 문제입니다. 민주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올바른 의식을 배양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래의 일꾼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청소년 수련과 청소년 문제의 개선 등에 관심을 갖고 1963년부터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회원 5천명, 청소년 회원 4천명, 청소년 동아리를 거친 명예회원이 3만명 정도 됩니다.

崔廷漢 : 도시연대는 95년 11월 당시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는 취지로 「시민교통환경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습니다.

버스 비리사건 등 교통과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의 사회부조리 현상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어린이 통학로, 주택가 주변 생활도로 환경 등의 문제를 제시 및 개선하고자 97년 「걸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로 정식 발족, 보행환경 중심으로 문제점 개선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최근에는 건축환경이나 도시 계획 등 거리를 구성하는 제반 요소에 대해 관심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시민들이 우선 자기

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을 조직, 지역내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협의체를 통해 도시와



李炯均동문

## 자발성·중립성·도덕적 힘이 생명

### 시민운동 방관 말고 적극 참여해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공동체적인 틀속에서 엮어나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1백여명의 전문가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현재는 인사동 살리기 운동 등 의식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분이 1천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사 회 :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崔廷漢 : 도시의 레벨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도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논란이 많습니 다. 어떤 경우에는 광역이 될 수 있지만 삶이 공간적으로 표현되는 곳이 도시라고 보면 농촌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겠지요.

金西鎭 : 경실련은 89년 창립, 올해로 10주년이 됩니다. 회원 수는 3만여명입니다. 조직구성은 전문가, 실무자,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실무자가 그 진행을 맡고 있으며 시민들은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활동은 대표적으로 금융

실명제, 토지공개념 문제 등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경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의 불균형을 낮게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정활동감시단, 예산낭비감시단 등을 통해 정부의 집행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올해는 특히 정치개혁에 역점을 두고 실업자,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대안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林春心 : 시민의 모임은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을 통해 소비자의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83년 발족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성남, 원주, 안산, 태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4만 5천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 문제 전반에 걸쳐 교육, 상담, 홍보, 출판 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모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등 10여개 대학에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모임은 2백30개국 회원으로 있는 국제소비자기구(CI)의 이사단체로서 한국의 위

## 소비자 교육·상담·홍보에 역점

### 주권 확립·삶의 질 향상에 기여

상을 높이는데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崔禮鎔 : 환경운동연합은 93년 4월 전국 9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공해추방운동단체들의 통합단체입니다. 현재 34개 지역으로 확산, 회원수는 5만1천명 정도입니다.

주된 활동으로 골프장파해지역주민, 공단공해지역주민, 공해병환자 및 반핵주민운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호오염, 새만금간척 문제, 영종도신공항문제, 국립공원내 대규모 개발시설문제,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반대운동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문제 제기과 그 해결을 모색하고 최근에는 생태계보호운동(국립공원보호, 지리산 반달곰 살리기 및 모피옷 안입기운동 등 야생동물보호운동, 갯벌 살리기운동)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지구온난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사 회 : 70, 80년대 시민운동이 주로 민주화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요즘은 제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데 자금의



林春心동문

지 종교·취미·친목단체에 비해 참여도가 높지 않습니다. 시민이 편하게 참여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은 큰 과제입니다.

崔廷漢 : 전문가들이 다른 기관과의 협동연구를 한다거나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해 생기는 비용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재작년부터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을 높이고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金西鎭 : 전국 35개 지부가 회원들의 회비와 부정기적인 후원금 및 프로젝트 사업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는 모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林春心 : 시민의 모임 역시 회원회비로 운영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원의 경우, 가입비 1만원과 연회비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 회 : 네덜란드의 경우 시민단체의 90%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경우는 어떻습니까?

朴聖圭 : 과거 관변단체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시민단체의 경우, 운영비 대신 프로젝트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西鎭 : 경실련의 경우, 평생 회비제도가 있는데 영수증 처리를 통한 세금계산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면 좋겠습니다.

崔廷漢 : 세금감면, 법인의 활동에 따른 사회적 절차를 인정해주고 우편료 등 통신비만이라도 할인 혜택을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 회 : 시민운동은 자발성과 중립성,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도덕적 힘」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 활동에 제약이 있으리라 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우후죽순으로 유명무실한 시민단체가 생겨나리라는 우려도 있는데.

金西鎭 : 새만금호 간척사업에 함께 참여하자고 전화를 걸어오



朴聖圭동문

들어 의료행정,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부 권위주의적인 의사와 결부된 문제를 상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金西鎭: 물론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만 시민단체의 경우, 실무자들의 역량이 중요한데 능력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힘들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도 관리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란 직

를 깨닫고, 기꺼이 그 싸움에 나서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金西鎭: 마스크를 활용하고 보다 많은 회원을 모집할 생각입니다.

朴聖圭: 청소년 회원모집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입시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회원모집 여건이 어렵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학생의 한 단체 가입을 권장하고 방과후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어 앞으로 회원모집이 용이하리라 봅니다. 신세대에 접근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홍보용 팸플릿도 계층별로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崔廷漢: 시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에 적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작년에 인사동을 중심으로 역사문

영향력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金西鎭: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더욱 공신력을 쌓아 힘을 강화시켜야겠지요.

사 회: 편하고 좋은 직장마다하고 험난한 길을 택했는데 후회해본 적은 없습니까?

林春心: 소비자단체에 몸담은 지 6년이 넘었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데 저는 이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목민이



金西鎭동문

대인들이 시민단체에 좀더 많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문이나 동창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金西鎭: 동창회보에서도 시민단체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崔禮鎔: 솔직히 서울대의 경우 같은 직장내에서도 모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면들이 너무나 많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지요. 동창회가 사회 각 분야에서 그야말로 소금이 되고 희망을 주는 활동을 하는 서울대인을 많이 발굴하여 사회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진정한 서울대인의 위상을 세우는데 앞장서길 바랍니다. 특히 빛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새시대 새로운 역할로 부여받은 시민운동 분야에 후배들이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제공하는 역할도 기대합니다.

朴聖圭: 우리나라 지식층 특히 우리 동문들이 사회봉사 단체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 회: 앞으로 서울대 동문을 비롯한 시민들이 단체를 통한 시민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시민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만



崔禮鎔동문

## 시민 교육·미래 일꾼 양성이 목표

### 단체 활동가 재교육 기회 많았으면

는 등 시민단체인지, 컨설팅회사인지 성격이 애매한 단체들도 간혹 있습니다.

사 회: 최근 정부에서 과거보다 시민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朴聖圭: 요즘에 와서 행정을 보면 시민단체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할 때 시민단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崔廷漢: 최근 각종 정부위원회나 행정위원회에 시민단체 간부들이 참석하고 있으나 그 실상을 보면 시민을 대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다기 보다는 개별참여 방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직 시민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구조로서의 협의기구가 만들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되는데 이것을 수렴하고 완화하는 장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金西鎭: 우선 Agenda가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서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데 아직도 시민단체의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崔廷漢: 과거의 제도, 관행과 현재 여건의 차이가 굉장히 큼니다. 가령 어떤 계획의 경우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과거의 절차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스케줄을 미리 짜놓고 나머지 부분을 거기에 꿰맞추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항을 논의하려고 하면 『일정이 촉박한데...』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등의 전제조건을 내세워 제약을 받게 되어 부분적인 자문, 한정된 틀 속에서의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마는 실정입니다.

사 회: 각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는데 겪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林春心: 특정·특수집단, 예를

접 참여해서 봉사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朴聖圭: 시민운동의 영역이 커지면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재충전의 기회가 적은 편입니다. 시민활동가들도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林春心: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을



崔廷漢동문

## 교통·건축·보행환경 개선에 힘써

### 시민운동은 시민 마음 잘 읽어야

마치 월급 주고 부리는 하인처럼 취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崔禮鎔: 환경련의 경우, 규모와 역사성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거의 모든 환경문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듯 점점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가는 환경문제를 낮은 수준에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활동가나 참여하는 시민들이 몇가지 중심주제를 정하고 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요구가 다양해 소위 백화점식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여기에 상근활동가들의 재교육과 전문성 제고의 요구를 담아줄 프로그램 및 재원이 전무하다는 점 또한 활동가들이 평생투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사 회: 우리 사회의 시민들도 이제 굶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시대의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싸움이 필요한지

들의 아픔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겠지요.

崔禮鎔: 시민참여는 당위론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대도시에서의 시민참여는 생활조건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경우 구나 군처럼 지역단위에서 실효 프로그램 찾아내고 직장과 가정에서의 참여프로그램을 모색해 내는 것이 관건이라 봅니다. 환경련과 같은 현장운동단체는 정책개발위주의 단체와 달리 과감한 액션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육구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 회: 21세기에는 시민운동의 찬란한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신해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면 선진화, 세계화가 더 다져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崔廷漢: 21세기에는 시민단체가 기업이나 국가와는 또다른

## 경제 투명성 위한 정책대안 주력

### 소득불균형 체계정비에 초점 맞춰

화탐방 행사를 시험적으로 펼쳤는데 처음에는 호응이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이틀간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시민운동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면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西鎭: 연대보증제 폐지를 위해 집중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정부에서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민

정착을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곳에 텐트를 쳤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헌신할 생각입니다.

崔廷漢: 재학시절 학생운동으로 자퇴를 하고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라는 인권단체에서 간사로 일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용접 일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편해진 것입니다.

朴聖圭: 고교시절 흥사단의 정신과 취지에 흠뻑 빠져 개인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정신을

## 생태계·지구환경 보호에 앞장 서

### 직장·가정 단위의 운동참여 시급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 회: 외롭고 고생스러운 길인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믿음직합니다. 흔히 대학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와 봉사라고 하는데 그동안 서울대인의 사회봉사 참여도가 낮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 많은 동문들이 시민운동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울

대게 되고 정부는 시민들의 주문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 각자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1년에 단돈 1만원이라도 기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민운동은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 락 처〉

- 시민의 모임 林春心 교육부장: 720-0328
- 흥사단 朴聖圭 사무총장: 745-1913
- 도시연대 崔廷漢 사무총장: 332-6044
- 경실련 金西鎭 기획실장: 771-0372
- 환경운동연합 崔禮鎔 총무국장: 733-7117

동문  
화제의  
Talk

李炳勳 소아과의원 원장

## 위생팬티 등 국내외 발명특허 9개 소유

### “항상 거꾸로 생각하면 아이디어 떠올라”

1920년대 미국의 조셉이라는 한 양치기 소년이 살았다. 어느날 양 몇 마리가 우리 밖으로 도망가자 소년은 밤새 양을 찾다가 지쳐 풀밭에 앉아 양들이 노는 것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양들이 장미 가시가 있는 울타리 근처로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은 양들이 잘 도망가는 울타리 부근에 철사를 엮어서 가시줄을 만들어 놓았다. 이후 양들은 가시줄이나 가시철조망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

았다. 소년은 이 가시철망에 대해 특허를 냈고 특허 시효가 끝날 때까지 회계사 11명이 1년간 꼬박 계산할 정도의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발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저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고 좀더 편리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고민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7월 의과대학 미주지부동창회 제15차 「여름학술대회」에서는 조금 특별한 강연이 펼쳐졌다. 「발명 특허」와 관련된 이 강연의 주인공은 머리만 있는 시청형 청진기, 환경오염방지와 납중독을 예방하며 무게조절이 가능하고 집어제 주머니가 결합된 조립식 낚시줄 등 미국 발명특허 2개와 국내 발명특허 6개를 소유하고 있는 별난 소아과 원장인 李炳勳(66년 醫大卒)동문이었다.

모교와 순천향대를 거쳐 소아과를 개원한지 20년이 넘는 李동문이 엉뚱하게 발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인 李國柱(35년 경성제대 의학부卒)前 모교 명예교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평소 발명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와 함께 李동문은 연탄을 갈때마다 가스냄새가 심한 19공탄의 구멍 맞추기가 힘든 것을 보고 팔각형 연탄을 고안해 특허를 신청했지만 이미 40년 전에 일본 사

람이 먼저 개발했다는 거절의 말만을 들었다고 한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의 일이고 이후 李동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명해 특허 신청을 냈지만 번번이 외국 사람이 먼저 발명한 것이라는 말만 듣게 되었다.

『그때는 왜 발명특허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지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요즘에서야 알았죠. 의사인 내가 환자의 입장에 서보고 뭐든지 반대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면서 나만의 발명품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생겨난 李동문의 발명품으로는 스피커와 마이크, 라디오 등이 장착된 환자용 베개를 비롯해 다용도 모자, 질병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위생팬티, 혈압과 맥박, 체온을 잴 수 있는 건강시계 등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발명특허를 받은 것으로 요즘에는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바로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李동문은 말한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각광 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모교 공대 李冕雨(66년工大卒)교수의 말처럼 미국과 일본에 대한 소모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창의력 있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李동문은 최근 시골에서도 손쉽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고안된 싱글헬스룸을 발명, 국내 특허를 받았다고 한다.

李동문은 발명뿐 아니라 국제라이온스협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의대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2천만원을 약속하는 등 사회 봉사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美)



③② (주)한울테크놀로지

## CAD/CAM시장 집중 공략으로 눈부신 성장

### 자동차 설계·제품 디자인 분야 돌풍 예고

현대의 제품 개발은 컴퓨터 상에서 단기간 내에 실물과 가까운 제품을 설계(CAD), 이에 대한 가공가능성 및 강도 등에 대한 해석(CAE)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CAD/CAM/CAE의 도입은 제품 개발기간의 단축, 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

특히 오늘날의 시장에는 이에 대한 기술의 축적이 제조업체의 생사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안건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CAD/CAM/CAE 시장에 (주)한울테크놀로지는 단연 기술적 우위를 점유, 국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93년 12월 한울테크놀로지가 설립될 당시 국내에는 CAD/CAM/CAE가 그리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한울테크놀로지는 라팔과 미라쥬 전투기로 유명한 Dassault社와 IBM이 공동 판매하는 CAD/CAM/CAE 소프트웨어인 CATIA를 공급하며, 국내 제조업체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한울테크놀로지는 제조업체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기술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편 한울테크놀로지는 디자인 단계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전 단계를 고려한 동

시공학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부설 산업디자인 연구소를 설립, 이를 토대로 제품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다.

또한 기업과 소비자 중 어느 한쪽도 소홀하지 않는 프로 정신으로 무장, 제품디자인 개발 프로세스에 임하고 있으며, 디자인 프로세스 중 그래픽 디자인과 CAID(Computer Aided Industrial De-

sign) 시스템을 활용한 가전 제품디자인, 자동차 내·외장디자인 등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편 한울테크놀로지는 CAD/CAM 시스템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제조과정에서의 상품 개발 단축,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 등을 실현해 오고 있다.

특히 한울테크놀로지는 Chrysler社가

도입해 제품 개발 기간을 무려 10개월 이상 단축시켰던 Digital Mock Up(컴퓨터에서 완벽하게 가상 제품을 만든 후, 직접 제품 양산 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기술을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전 사원이 어떠한 제품도 완벽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에 가득차 있다.

현대, 삼성 등 국내 굴지의 자동차, 중공업 회사에 교육 및 설계 컨설팅을 해오고 있는 한울테크놀로지는 이를 통해 국내 업계의 기술력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자동차 및 우주항공, 가전 제품 등 고도의 설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위해 현재도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한울테크놀로지의 선봉장으로는 蔡憲(79년工大卒)동문이 자리하고 있으며, 현 경제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그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 한울테크놀로지는 지난 98년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벤처기업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다가올 2천년대 지식산업의 최고 기업이 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내딛고 있다.

(信)



중앙에 서서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蔡憲사장

# 동정

## 수상

▲金靈燁(61년 工大卒·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3월 1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삼일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0회 「3·1문화상(기술부문)」을 받음.

▲金鍾鎭(62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지난 3월 1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삼일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40회 「3·1문화상(자연과학부문)」을 받음.

▲趙東一(66년 文理大卒·모교교수)=지난 2월 2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만해사상 실천선양회가 수여하는 제3회 「만해상(학술부문)」을 받음.

▲具本國(69년 工大卒·삼성전자 기술고문)=지난 2월 11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기술인상(최고기술경영자부문)」을 받음.

▲李益治(69년 商大卒·현대증권 회장)=지난 1월 18일 매일경제신문이 수여하는 제1회 「매경증권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됨.

▲姜正文(71년 文理大卒·대흥기획 대표)=지난 2월 3일 조선포에서 한국광고연구원이 수여하는 「98 올해의 광고인상」을 받음.

▲李鍾郁(71년 藥大卒·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지난 2월 11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기술인상(연구소장부문)」을 받음.

▲李惠柱(73년 美大卒·중앙대교수)=최근 동경에서 열린 국제 선면전에서 부채를 이용한 섬유예술 작품으로 「우수상」을 받음.

▲徐相熙(74년 工大卒·KIST정보재료·소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지난 2월 1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제1회 「松谷과학기술상」을 받음.

▲任志淳(74년 文理大卒·모교교수)=지난 2월 3일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음.

▲尹保鉉(79년 醫大卒·모교교수)=최근 미국에서 열린 제19차 미국 모체·태아 의학회에서 신생아 뇌성마비의 주요 원인이 자궁내 감염임을 밝힌 논문으로 「최우수 연구상」을 받음.

## 이동·선임

▲張禮準(49년 商大卒·삼신올스테이트생명 명예회장·商大同窓會長)=최근 사단법인 상우회 제16회 총회에서 회장에 연임됨.

▲文太俊(50년 醫大卒·보건의료정책연구소 이사장)=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장에 재선

출됨.

▲李成宰(48년 法大入·영신금속공업 사장)=최근 영신금속공업 회장에 선임됨.

▲李炳淅(58년 法大卒·前농림수산부 차관)=지난 1월 29일 한국사료협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회장에

재추대됨.

▲金鈞洙(61년 商大卒·LG-EDS 시스템 사장)=지난 2월 11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趙南弘(62년 文理大卒·경총상임부회장)=지난 2월 10일 서울시 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됨.

▲宋敏(63년 文理大卒·국민대 교수)=지난 3월 1일 국어학회 회장에 취임함.

▲尹元錫(63년 法大卒·前(주)대우건설부문 사장)=최근 대우학원 이사장에 선임됨.

▲李東春(63년 法大卒·前포철부사장)=최근 성신여대 「인사관리전문가 양성프로그램」담당 겸임 교수에

위촉됨.

▲南仲九(64년 文理大卒·동아일보 논설주간·本報 論說委員)=지난 2월 18일 동아일보 안보통일연구소장

에 선임됨.

▲李濟薰(64년 文理大卒·삼성전자 회장비서실장 보좌역·新聞大學院同窓會長)=지난 3월 1일 중앙일보 편집 및 광고담당 부사장에 선임됨.

▲宋鎭赫(65년 文理大卒·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本報 論說委員)=지난 3월 1일 중앙일보 논설주간에 선

임됨.

▲李光政(65년 師大卒·경원대교수)=지난 1월 20일 경원대 일반대학원장에 선임됨.

▲康炳浩(66년 法大卒·대우자동차 사장)=지난 1월 2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에 선임됨.

▲全義進(69년 工大卒·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협력국장)=최근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에 선임됨.

▲辛在哲(70년 工大卒·한국IBM(주) 사장)=지난 2월 1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됨.

▲金德洙(70년 商大卒·산업증권 사장)=최근 한국산업은행 본점 기획담당 이사에 선임됨.

▲趙允熙(71년 商大卒·前한국수출입은행 싱가포르 종합금융 사장)=최근 한국선물거래소 상무에 선임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사장)=지난 1월 29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세계신문

협회(WAN)본부 이사에 선임됨.

▲南京熙(72년 文理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2월 2일 인문학부 학부장에 선임됨.

▲李東和(72년 文理大卒·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국제부 이사)=최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무로 승진함.

▲全熙天(72년 文理大卒·前금강기획 전무)=지난 2월 8일 오리콤 사장에 선임됨.

▲鄭周浩(72년 商大卒·대우자관 사장)=최근 (주)대우 회장 부속실 사장으로 자리를 옮김.

▲金基道(72년 新大院卒·前국회의원)=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객원 교수로 초빙됨.

▲崔暎(72년 新大院卒·이화여대 교수)=지난 2월 2일 영어영문학부 학부장에 선임됨.

▲禹鍾仁(72년 醫大卒·모교교수)=지난 2월 9일 한국치매협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됨.

▲金庚花(73년 文理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2월 2일 수리과학부 학부장에 선임됨.

▲白南善(73년 醫大卒·원자력병원장 직무대행)=지난 2월 13일 원자력병원 신임 병원장에 선임됨.

▲廉傑洁(74년 商大卒·동양시스템하우스 사장)=지난 1월 12일 동양증권 사장에 선임됨.

▲朴在天(75년 工大卒·데이콤

(10면에 계속)

(9면에 이어)



전무)= 지난 1월 11일 데이콤 전무겸 데이콤인터내셔널 사장에 선임됨.  
▲金貳煥(75년 新大院卒·아남반도체 경영지원실장)= 최근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외부 겸임 교수로 위촉됨.



▲黃昌圭(76년 工大卒·삼성반도체연구소장 전무)= 지난 1월 21일 부사장으로 승진함.  
▲李啓炯(77년 師大卒·중소기업청 정책총괄 과장)= 최근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에 선임됨.



▲姜榮哲(80년 社會大卒·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 지난 2월 2일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겸 편집국 지식

부장에 선임됨.  
▲尹碩敏(87년 工大卒·前SBS 기획편성 부본부장)= 최근 (주)태영 상무(회장 특별보좌역)에 선임됨.

▲孫基洛(9기 AMP·LG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 최근 LG산전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됨.

▲黃斗烈(31기 AMP·SK(주)전무)= 최근 SK에너지판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金東元(33기 AMP·동아금고 회장)= 지난 1월 29일 국민금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尹炳哲(3기 AIP·하나은행 회장)= 최근 한국기업메세나협의 회장에 추대됨.

▲南錫祐(35기 AMP·(주)콤



텍시스템 사장)= 지난 2월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됨.

▲崔東煥(24기 ACAD·국방과학연구소장)= 지난 2월 5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회장에 선출됨.

▲金正吉(28기 ACAD·前행정자치부 장관)= 지난 2월 5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됨.

▲金正肇(34기 ACAD·前육군준장)= 지난 1월 29일 전쟁기념사업회 사무총장에 선임됨.



▲安承雨(38기 ACAD·前성원상호신용금고 사장)= 지난 1월 11일 대한종합금융사장에 선임됨.

## 행사·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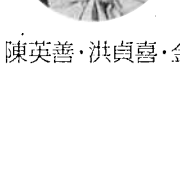
▲李姬鎬(50년 師大卒·대통령영부인)= 지난 2월 10일 덕성여대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음.



▲張英俊(54년 商大卒·前관동대 대학원장)= 최근 「국제통상용어사전」(학문사刊)을 출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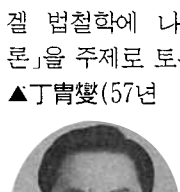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우덕 대표 美大同窓會長)=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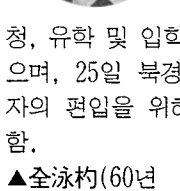
陳英善·洪貞喜·金炯株·車明憲·

張惠容·李善媛·李珉柱등을 초대하여 「15인의 시각전」을 가짐.

▲林錫珍(56년 文理大卒·한국해절학회 회장)= 지난 2월 6일 모교 인문대 교수회의실에서 「해절 법철학에 나타난 시민사회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짐.



▲丁靑變(57년 師大卒·용산고등학교장·북경어문학원장)= 지난 2월 10일 북경언어문화대학 부총장을 초청, 유학 및 입학설명회를 가졌으며, 25일 북경어문학원 수료자의 편입을 위해 중국을 방문함.



▲全泳杓(60년 文理大卒·신구대 교수·출판문화학회 회장)= 지난 2월 25일 제8회 학술포럼에서 「IMF와 시장



개방에 따른 잡지계 대응책」을 주제로 강연함.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시 회장)= 최근 코모드 호텔에서, 鄭光謨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초청, 특별 강연회를 가짐.



▲禹保命(61년 農大卒·한국임학회 회장·모교교수)= 지난 2월 5일 모교에서 99년 정기총회 및 학술 발표회를 가짐.

▲李炯均(64년 文理大卒·前 한국PR협회장·本報 論說委員)= 3월부터 경희대 정경대학에 출강, 「현대사회와 언론」에 관해 한 학기동안 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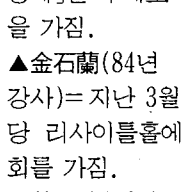
▲李瑞炯(68년 工大卒·금호건설 사장)= 지난 1월 29일 울산시 남구 달동 금호타운 신축공사를 하면서 인근도로를 만들고 하천을 정비한 공로로 울산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음.

▲梁浩一(76년 環大院卒·서울디자인포럼학회 회장)= 지난 2월 3일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5개국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극동아시아문화와 산업디자인」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가짐.

▲裴馨京(78년 美大卒·조각가)= 지난 2월 3일부터 21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주제로 세 번째 개인전을 가짐.

▲金石蘭(84년 音大卒·국민대 강사)= 지난 3월 6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朴恩鏡(86년 音大卒·외국어대 강사)= 지난 3월 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黃愛蘭(90년 音大卒·숙명여대 강사)= 지난 2월 6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슈베르트와 브람스의 가



곡을 중심으로 독창회를 가짐.

▲洪知惠(94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지난 2월 7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네트의 「무



반주 비올라를 위한 론델」를 중심으로 비올라 독주회를 가짐.

▲金信怡(93년 音大卒)= 지난 3월 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와 베토벤의 소나타를 중심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정리=李美連 기자)



##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오성택 군(97년 經大院卒)·최인숙 양=3월 20일 15시30분.

\*오정근 군(96년 美大卒)·조윤정 양=3월 21일 14시.

\*구봉석 군(96년 農生大卒)·정대순 양=3월 27일 14시.

\*전용범 군(95년 社會大卒)·구지숙 양=3월 27일 15시30분.

\*신정건 군(89년 工大卒)·김수진 양=4월 3일 14시.

\*김영로 군·이정미 양(98년 大學院卒)=4월 5일 12시30분.

\*김남시 군(93년 人文大卒)·나유신 양=4월 10일 12시30분.

\*김익연 군(91년 藥大卒)·이민영 양=4월 10일 15시30분.

\*정종구 군(99년 大學院卒)·고은경 양=4월 11일 14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의 예식에 대한 사항은 하안드레스(전화 02-716-2230)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ASEM준비기획단  
鄭健溶사업추진본부장



한국무역협회  
金在哲회장

## “회의장 건설·문화행사 추진에 전념”

지난 1월 9일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기획단 사업추진본부장에 선임된 鄭健溶(73년 法大卒·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동문을 만나 200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ASEM을 위한 우리의 준비와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사업추진본부장에 선임된 소감은.

『이번 회의는 21세기 들어 첫 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서 상호협력 증진과 경제위기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회의 준비를 맡게 돼 보람을 느끼는 한편 어깨가 무겁습니다』

— 사업추진본부의 주된 역할은.

『사업추진본부는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된 국제회의장과 각종 지원시설의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문화행사 등의 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건립 중인 ASEM회의장의 구성과 특징은.

『회의장은 무역협회가 삼성동 무역센터를 확충, 건설키로하여 96년 11월에 착공되었습니다. 6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홀과 1천1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디토리움, 25개국의 정상들이 열띤 회의를 펼칠 정상회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장 및 연회장과 영화관 등을 포함한 각종 관련 시설도 함께 건설 중입니다. 1월말 현재 57%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3월에 완공 될 예정입니다. 완공 후 ASEM전까지 2~3차례 국제회의를 유치·운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ASEM 서울회의를 기념하여 아시아·유럽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공연



및 전시회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 현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최근 금융 구조조정의 문제점은.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입니다. 합병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음에도 자신의 뉘만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자세로 해당 기관간의 알력이 생기고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의 내실화 유도, 건전성 규제의 강화, 경영의 투명성 제고, 예금 보험제도의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해보다는 국익적 측면에서 대승적 희생도 감수하는 자세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美)

## 장남 참치어선 선원, 차남은 참치캔 판매



지난 2월 10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에 선임된 金在哲(AMP 4기·冠岳會 理事·동원산업 회장)동문을 만나 앞으로의 활동과 운영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한국무역협회의 최고 사령탑에 오른 소감은.

『7만여 무역업체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2백80억달러의 무역흑자 달성도 가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 무역흑자를 내기 위한 협회의 역할과 수출 증진 방안은.

『이제까지 양적 위주의 상품수출에서 질적인 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입지를 살린 물류산업, 소프트웨어 및 벤처기업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수출 이외의 분야에도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무역협회는 환율의 안정, 금

리안하 등을 포함한 무역업계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요구할 것은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화시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과 지방 무역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앞으로 협회 운영 계획은.

『무역협회는 당장 내년부터 회원 가입이 자유화되는 등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됩니다. 따라서 수행한 업무의 분량보다도 성과에 의해서 숫자로 파악될 수 있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시킬 예정입니다. 더구나 2000년에 개최되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은 국가적인 행사이며 또한 우리 협회의 재정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두 명의 자제에게 축독한 경영 수업을 시켰다는데.

『큰 아들은 참치어선에 선원으로 일하게 한 적이 있고, 둘째 아들은 지금도 청량리에서 참치 캔을 팔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고생을 해봐야 어려움을 알고 균형적인 사고가 얻어진다는 것이 저의 경영철학입니다. 자기들이 원치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다행히 제 뜻을 따라주어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본회의 관악회 이사로서 동창회와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서울대학교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이지만 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업적과 성과를 올리는 세계의 유수한 대학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동문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信)

## 李吉女 특지장학금

### 4명에게 4백80여만원 전달



李이사장(左)이 韓보라양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李吉女(57년 醫大卒·의대동창회장)학교법인 가천학원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9학년도 제1학기 「李吉女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96년 3월에 李동문이 출연한 1억원을 그동안 본회에서 관리

해 발생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徐恩河(약학과 2년), 韓惠珍(식품영양학과 2년), 韓보라(국민윤리교육학과 2년), 李朱嫻(사회교육 1년)양 등 4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4백85만5천원을 지급했다.

## 金讚淑 특지장학금

### 2명에게 3백60여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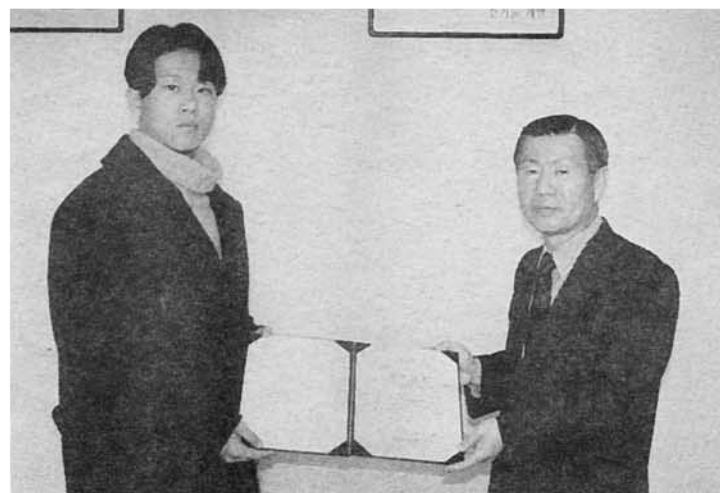
金회장(左)이 權寧大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金讚淑(60년 齒大卒·치대동창회장)청아치과병원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9학년도 제1학기 「金讚淑 특지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金동문이 96년 7월에 출연한 1억을 본회에서 관리,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모교 權寧大(치대 3년), 俞政勳(치대 4년)군 등 2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63만6천원을 전했다.

## 張世一 특지장학금

### 1명에게 1백여만원 전해



俞益善부사장(右)이 郭군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張世一(63년 工大卒·울산지부 동창회장)(주)일성 사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주)일성 俞益善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9학년도 제1학기 「張世一 특지장

학금」수여식을 가졌다. 張동문이 98년 5월 출연한 5천만원을 본회에서 관리,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郭列希(전기공학부 3년)군에게 1백31만6천원을 전달했다.

## 朴柱鐸 특지장학금

### 盧殷植군 등록금 전액 받아



黃俊基부사장(左)이 盧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朴柱鐸(74년 商大卒·관악회 감사)수산그룹 회장은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수산중공업 黃俊基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9학년도 제1학기 「朴柱鐸 특지장학금」수여식

을 가졌다. 98년 7월 朴동문이 출연한 5천만원을 본회에서 관리해 발생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盧殷植(법학부 2학년)군에게 등록금 전액 91만5천5백원을 전달했다

## 田溶星 기금장학금

### 3명에게 4백여만원 수여



田부회장(左)이 申一勳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田溶星(50년 文理大卒·본회 부회장)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9학년도 제1학기 「田溶星 기금장학금」수여식을 가졌다.

98년 3월 田동문이 출연한 1천만원을 본회에서 관리해 발생

한 이자로 모교 재학생 李世辰(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申一勳(전산학과 석사과정)군과 黃賢暻(원자핵공학과 2년)양 등 3명에게 등록금 전액 총 3백98만3천5백원을 지급했다.

## 재미동창회

### 李丙俊명예회장 본회 방문



지난 2월 4일 재미동창회 李丙俊(59년 商大卒)명예회장 내외가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동창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미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캐나다 밴쿠버, 온타리오지부와 연대하여 북미지역 차원에서 활동하고, 각 지부 회장단 임기를 2년 정

도로 늘려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차기 평의원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李회장은 『차기 재미동창회 집행부는 의욕과 리더십이 많은 동문이 맡아서 여러 동문들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자립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 대구·경북지부

### 徐德圭회장 선출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元虎出)는 지난 1월 25일 그랜드호텔에서 99년 제1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徐德圭(58년 商大卒·대구은행장)동문(사진)을 선출했다.

한편 2월 9일 1백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프린스호텔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權泰仁(78년 人文大卒·대구방송 편집부장)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은 李弘中(71년 工大卒·화성산업 대표)간사장의 동문소개에 이어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전임 元虎出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 영동지부

### 姜奎錫회장 연임

영동지부동창회(회장 姜奎錫)는 지난 2월 5일 동해관광호텔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同會는姜회장의 유임을 결정했으며, 신임 부회장에 鄭聖和(70년 工大卒·(주)내인 사장)동문을 선임했다.

## 상해지부

### 金秀顯회장 선임

상해지부동창회(회장 朴魯彦)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秀顯(69년 獸醫大卒·SIAS-KOREA)동문을 선출했다.

또한 수석부회장에 孫炳大(75년 工大卒·SK현지무역법인)동문, 부회장에 崔漢倍(75년 商大卒·대주전자재료)동문, 총무에 柳亮旭(86년 自然大卒·현대석유화학)동문을 선임했다. (信)

## 모임예정

### 간호대학

看護大學同窓會(회장 楊銀淑)는 3월 20일 정오 모교 간호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740-8843)

### 의과대학

醫科大學同窓會(회장 李吉女)는 3월 23일 오후6시30분 신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762-9051)

楊銀淑 간호대동창회장

## 「특지장학금」 5천만원 출연



간호대동창회장인 楊銀淑(54년 看護大卒·간호협회 재정위원장)동문(사진 中)이 지난 2월 11일 본회 金在淳회장에게 특지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관악회의 관리하에

개별 장학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본회는 이번 출연금을 원금으로 하여 楊동문이 특별히 지정하는 모교 재학생에게 楊동문의 명의로 99년 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본보 金哲洙상임논설위원

## 제주 탐라대 총장에 취임



지난 2월 20일 본보 상임논설위원인 金哲洙(56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동문이 탐라대학교 제2대 총장에 취임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본회 孫一根 논설위원,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金容俊헌법재판소장, 邊精一·玄敬大국회의원, 曹海寧 前 행정부 장관, 韓光洙제주지검장, 禹瑾敏제주도지사, 姜相周서귀포시장, 朴鉉熙대구대 총장, 李

相一서강대 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신임 金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바른 가치관·국제적 안목을 갖춘 지성인을 양성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화·전문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 이어 제1회 학위수여식을 개최, 재학생 2백88명이 졸업했다.

동창회 국민카드 사업  
6천7백만원 결실

본회(회장 金在淳·사진 左)는 지난 2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카드사(사장 李淇鎔·사진 右)로부터 98년 1년동안 동문들이 발급받아 사용한 결실로 모인 「서울대총동창회 국민카드」의 기부금 6천7백24만8천2백76원을 전달 받았다.

상과대학

## 우수 졸업자 시상·장학금 전달



商科大學同窓會(회장 張禮準)는 지난 2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클럽에서 「99학년도 1학기 향상장학금 전달식」과 「98학년도 최우수졸업자 및 논문작성자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수졸업자로는 경영대학 李相澈군과 경제학부 李泰錫군이 수상했으며, 최우수 논문작성자

로는 경영대학 安孝聖군과 경제학부 金元鎔군이 「PCS시장 현황과 SK텔레콤의 마케팅 전략」과 「과투자행위에 관한 실험적 연구」 논문으로 각각 수상했다.

또한 李頂民군을 비롯한 경영대학 및 경제학부 재학생 30명에게 각 50만원씩 1천5백만원의 향상장학금을 수여했다.

종교학과

李恩奉회장 선출



종교학과동창회(회장 宋炳瓚)는 지난 2월 6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朴朝駿(갈보리교회 목사)동문의 특별 강연이 있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恩奉(덕성여대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이어 가진 2부에는 학번별 소개와 노래 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수학과

## 신임 회장에 成耆重동문 선임



전임 金회장이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학과동창회(회장 金夏鎭)는 지난 2월 5일 모교 상산수리과학관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 선(4년)양 등 재학생 10명에게 同會 장

학금을 지급했으며, 신임 회원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成耆重(한국소프트텔레스 사장)동문을 선출했다. (信)

# 모교소식

## 총 6천3백11명 학위 받아

학사 3,723명·석사 2,093명·박사 495명



모교(총장 李基俊)는 지난 26일 제53회 학위수여식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金鍾泌국무총리(본회 고문), 본회 金在淳회장, 姜信浩·宋斗瀾부회장, 孫一根는설위원, 李吉女의대동창회장, 鄭八道AIP동창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尹天柱·權彝赫·李賢宰·趙完圭 전임 총장과 李基俊총장, 宋丙洛부총장, 禹鍾天대학원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2만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천7백23명, 석사 2천93명, 박사 4백95명 등 총 6천3백11명이 학위를 받았다. <명단 19~23면 게재>

또한 각 단과대학별 수석과 차석 졸업생에 대한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시상도 거행됐는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권윤경-이현정 △사회대: 김현-고은 △자연대: 이연-최자훈 △간호대: 최현정-문상희 △경영대: 이상철-김태엽 △공대: 김정원-강주희 △농생대: 이충형-김경출 △미대: 하준수-하준수 △법대: 최서은-조의연 △사대: 이준태-김홍진 △생활과학대: 김운-송미령 △수의대: 정원휘-박태현 △약대: 민혜원-황우진 △음대: 김정미-현숙이 △의대: 김남주-김지훈 △치대: 장연주-이주나

## 경영대학장에 尹桂燮교수 발전기금 南相午상임이사

지난 1월 23일 경영대학장에 경영학과 尹桂燮교수, 1월 26일 발전기금 상임이사에 경영학과 南相午교수를 각각 선임했다. 신임 尹학장은 68년 상대를 졸업한 후 70년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80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3년 상대 전임강사로 부임, 한국증권학회장, 한국재무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금융학회장, 금융개혁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95년 모교 교무처장을 맡은 바 있다. 신임 南상임이사는 65년 상대를 졸업, 위스콘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81년 모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에 부임해 경영학과 학과장, 경영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南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직을 맡게 된다.

## 金學主교수 등 22명 정년퇴임

지난 2월 27일 교수 22명의 정년퇴임식이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엔 퇴임한 교수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學主교수(중어중문학), 成百仁교수(언어학), 姜萬植교수(생물학), 金應瑞교수(기계항공공학), 羅啓俊교수(응용생물화학), 趙鍾涉교수(응용생물화학), 李啓瑚교수(식품공학), 安建鏞교수(조경학), 宋海均교수

(농업교육), 崔義淳교수(조소), 李政成교수(지구과학교육), 李容弼교수(국민윤리교육), 成在基교수(수의학), 李俊燮교수(수의학), 金洛斗교수(약학), 金正吉교수(작곡), 徐廷勳교수(치의학), 劉東洙교수(치의학), 金正根교수(보건학), 鄭文植교수(보건학), 韓秉勳교수(천연물화학), 池亨浚교수(천연물화학), <프로필 다음호에 게재> <燮>

## 金在淳회장 졸업축사 <요지>



우리는 아직도 立身揚名이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한 채 elite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입니다. 학문하는 이유가 벼슬하여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명예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던 전통적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 공동체의 지도세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 판에 깊이 새겨야 할 誠命은 「To rule is to service! 支配한다는 것은 奉仕한다는 것, 支配하기 위해서는 奉仕해야 한다는 것...」 이 한 마디라는 것을 후배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知識 가진 이, 才能 가진 이, 技術 가진 이는, 知識 없고 才能 없는 技術 없는 이의 두뇌가 되어 주고 입이 되고 귀가 되어 주고 손이 되어 주어서 그들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불편함을 풀어 주고 기쁨이 되어 주고 위로가 되어 주고 자랑이 되어 주겠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자란 부분을 나의 능력으로 메꾸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학문을 하고 사업을 하고 국가 경영에 참여할 때 서울대학교는 진정한 일류대학교가 되는 것이며 서울대인은 진정한 elite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제3대 총장이셨던 張利郁 박사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張박사는 우리들 제자 학생들에게 「무엇에든 미쳐보라」 「우리 나라에는 미친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하셨습니다.

세기적인 경제학자 John M. Keynes는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을 「레스쁘리·자니모(動物의 精氣)」라고 했습니다. 온실 속의, 산소 tent 속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황야 속으로 뛰쳐나가는 동물적 정신이야말로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인들이 「영리한 참모」로 그치지 않고 각기 자기 분야에서 「미친 사람」이 되고 「Animal Spirit」를 가지고 기백있는 elite로서 역동적으로 이 풍진 세상을 헤쳐 나가기 바랍니다.

## 李基俊총장 졸업축사 <요지>



오늘 이 시간부터 졸업생 여러분은 아마추어 정신을 뛰어넘는 프로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꾸어 나갈 미래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전문가로서의 프로페셔널리즘 정신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새로운 세기입니다. 이 새로운 세기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주변국가로 머물 것인가의 여부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불굴의 의지로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학문적 사회적 성취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서 세계화의 대열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노력과 그에 따른 실력이 제대로 보상받는 합리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으뜸가는 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21세기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지구촌화 혹은 Globalization입니다. 인류가 이제껏 지녀온 삶의 방식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은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의 어디에서도 당당히 의견을 피력하고 세계인들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金鍾泌총리 졸업치사 <요지>



우리 국민은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의 학문의 전당으로서, 이 나라 모든 부문을 이끌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리라는 한없는 기대를 가져왔습니다.

이곳 서울대학교의 교문을 거쳐나간 모든 이들 역시, 이러한 기대를 한시도 잊지않고 밤을 새워 공부했고 또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고 호흡하면서, 모든 부문에서 우리 조국과 겨레의 내일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인 일꾼이 돼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단순히 「국내 제일」이라는 평가에만 안주하지 말고 참다운 의미에서 「세계 제일」의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가 「한국교육의 본산」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다면, 이제부터의 서울대학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은 다양한 국제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일할 수 있는 Global Citizenship을 함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울대학교를 세계 속의 대학으로 우뚝 세우기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해주신다면, 정부는 서울대학교의 개혁노력을 뒷받침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신

新刊

■ 돌담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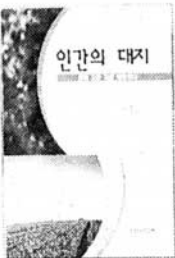
—申昌浩 著



제1회 편운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우일문화사 申昌浩 (41년 경성사범·45년 경성법전) 회장이 팔순을 맞이하여 1백30여편의 서정시를 모아 열 번째 시집을 펴냈다. (동화사刊·값8,000원)

■ 인간의 대지

—吳洪哲 著



지리학자인 吳洪哲 (58년 師大卒·동국대 교수) 동문이 인간의 활동 무대이며 생산의 장소인 땅의 실체와 등급 등을 해부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덕산미디어刊·값9,000원)

公演

■ 任美貞 피아노독주회

—3월 19일 예술의 전당

97년 산 안토니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등을 수상한 재미피아니스트 任美貞 (88년 音大卒) 동문이 하이든, 라흐마니노

프, 무소르그스키 등의 작품으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미추홀예술진흥회 391-2822)

■ 朱一葉 바이올린독주회

—3월 21일 예술의 전당

명지대 교수겸 서울아카데미 앙상블 악장인 朱一葉 (77년 音大卒) 동문이 생상스의 「백조」를 비롯해 베라치니, 베토벤, 스트라빈스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세실예술기획 2253-6295)

■ 李敎珍 하프독주회

—3월 28일 예술의 전당

하프리스트 李敎珍 (94년 音大卒) 동문이 바흐, 리스트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갖는다.

李동문은 지난해 이스라엘 국제하프콩쿠르, USA 국제하프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는 등 국제 대회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공연문의: 서울예술기획 548-4480)

展示

■ 張潤宇 금속전

—3월 27일 조흥갤러리

성신여대 교수인 張潤宇 (62년 美大卒) 동문이 금속을 재료로한 작품을 가지고 3월 2일부터 27일까지 개인전을 갖는다. (전시문의: 조흥갤러리 738-6806)

■ 安泳娜 개인전

—3월 31일 공평아트센터

安泳娜 (84년 美大卒) 동문이 「꽃에서-풍경」이란 테마를 가지고 40여점의 대작으로 4월 6일까지 여섯 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문의: 공평아트센터 733-9512)

(정리=安興燮 기자)

동문의 소리

신용사회와  
감정평가의 공신력



지금 우리는 IMF체제 이후 모든 분야에 걸쳐 개혁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기준의 투명한 신용사회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해 6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시장의 개방으로 감정평가 방법에 있어 거래사례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던 방법에서 수익률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환원법으로의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이러한 때, 우려되는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시스템 없이 감정평가 업무를 그 주체에게만 맡기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처해있는 신용사회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정착될 때까지는 관리가 필요하다. 80년대, 미국이 경제불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여 신용사회를 정착시켰던 역사적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금융기관·기업 등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로 발전하는데 감정평가업계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

姜吉夫 (84년 環大院卒) 한국 감정원장

신의와 성실로

21세기 비전 찾자



작년에 한 후배가 창업하면서 회사 이름에 대하여 상의해 온 적이 있었다.

지난 한 해는 한국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며 우리 국민 전체가 자존심을 구기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실의에 잠기고 하던 중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자는 뜻에서 「비전」을 추천하였는데, 그 후배는 「Fides(성실)」를 회사 이름으로 선택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며, 신의와 성실을 지킴이 미래의 비전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이라 생각되었고 그 후배의 창업 업종이 투자 자문회사이어서 합당하다 생각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었다.

금년에 작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호전되고 있는 한국경제에 아직 남은 불투명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구호보다도 신의 있고 성실한 기본의 실천만이 이를 극복하고 21세기의 비전을 찾아 주는 최선의 방안

이라 생각된다.

趙恒原 (76년 商大卒) (주)대성미생물연구소 대표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요사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네 단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IMF한파가 시작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우리의 사치성 소비문화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독일·이탈리아 등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벼룩시장에서 제2의 매매가 성행하고 대물림이 예사인데 우리 중고품이라면 색안경부터 끼고 쳐다보며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 우리 스스로가 망국의 무덤을 파고 있지 않은가.

몇몇 종교단체나 부녀회 등 각종 모임에서 이미 「아나바다 운동」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안다. 이제는 우리 관악인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몇 개월에 한번이라도 모교의 동창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행사를 갖는다면 필요치 않은 개인 소장품들을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놓을 수도 있고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오랜만에 정든 모교 교정에서 그리웠던 옛 교우들도 만날 수 있고...

「깡 먹고 알 먹고」라는 우리의 속담이 바로 이런 일을 일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宋庭畋 (91년 音大卒) KBS교향악단 클라리넷 부수석

#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동창회 신입회원 6,311명...축하합니다

모교 9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6일 거행돼 동창회는 6천3백11명(학사 3천7백23명, 석사 2천93명, 박사 4백95명)을 신입회원으로 맞이했다.

이로써 동창회 총회원수는 25만2백4명(준회원, 단과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회원수는 별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 구 분       | 2월졸업  | 총 회 원   |
|-----------|-------|---------|
| 인 문 대 학   | 229   | 7,518   |
| 사회과학대학    | 329   | 9,554   |
| 자연과학대학    | 303   | 7,618   |
| 가 정 대 학   | 109   | 2,882   |
| 간 호 대 학   | 74    | 2,815   |
| 경 영 대 학   | 158   | 4,403   |
| 공 과 대 학   | 977   | 31,811  |
| 농업생명대학    | 327   | 17,037  |
| 문 리 과 대 학 | —     | 9,731   |
| 미 술 대 학   | 107   | 3,935   |
| 법 과 대 학   | 199   | 13,343  |
| 사 법 대 학   | 318   | 21,595  |
| 상 과 대 학   | —     | 6,723   |
| 수 의 과 대 학 | 55    | 1,764   |
| 약 학 대 학   | 92    | 5,328   |
| 음 악 대 학   | 147   | 5,755   |
| 의 과 대 학   | 202   | 9,334   |
| 치 과 대 학   | 97    | 5,097   |
| 대 학 원     | 2,419 | 54,692  |
| 경 영 대 학 원 | —     | 701     |
| 교 육 대 학 원 | —     | 653     |
| 보 건 대 학 원 | 54    | 2,297   |
| 사 법 대 학 원 | —     | 508     |
| 신문대학원     | —     | 264     |
| 행정대학원     | 68    | 3,486   |
| 환경대학원     | 47    | 1,528   |
| 소 계       | 6,311 | 230,372 |
| 준 회 원     |       | 13,338  |
| (단 기 과 정) |       | 6,494   |
| 총 계       |       | 250,204 |

## 학 사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김문선 김상아 김수진 노경희 서승완

엄윤주 이서란 이선영 정선아 정해재  
조재형 홍석준 김하라 조성진 박진우  
이혜리 전우형 김진환 박우섭 박성아  
오영주 오인석 윤기동 정복용 서형범

#### ▲중어중문학과

김광일 김민정 남주경 정유선 오 철  
최준용 신영진 류승균 이진욱 정인영

#### ▲영어영문학과

김경민 박성민 신현숙 양병기 이현정  
임세호 임지현 장소영 정희원 최관능  
한서린 허윤영 배구인부 허진 홍석현  
김수연 김현정 류현주 안재진 조정리  
이정진 정상근

#### ▲불어불문학과

김정진 박영선 백용진 유 미 장수연  
배기표 신재요 최문선 권기덕 김승현  
안재현 정창근

#### ▲독어독문학과

곽인섭 김기연 김상은 김태환 최임열  
권대명 장현명 김경모 신수남 윤남호  
이종은 이종호 최문성 김도윤 이현재  
황중석

#### ▲노어노문학과

이광태 정 호 남명호 김민지 김정은  
남윤정 명장호 임형태 고민정 박영규  
문인석 백승무 이정택 임성진

#### ▲서어서문학과

고희경 권정화 서은희 심현숙 장혜인  
김성훈 김수연 박정은 이신재 하담미  
송훈엽 장근영 안 민 정광수

#### ▲언어학과

김민경 김민영 김보경 류희관 최나야  
공소영 윤민호 이수은 한인경 권정근  
신정민 조인식 최정기 한성호 김삼진

#### ▲국사학과

송용덕 허규은 도길복 송윤현 이건웅  
이명미 이승훈 홍승우 김중준 오제연  
고기석 김형렬 신동훈 오상현 오영렬  
원성호 최성규

#### ▲동양사학과

이원준 정지희 강효순 공금표 최효영  
한종권 김삼용 김삼욱 김현수 여운경  
유광훈 이의표 최봉재 전인석 황성하

#### ▲서양사학과

권윤경 연제혁 조성아 전은옥 박세혁

서재일 이주영 김진만 김한신 문성혁  
이종일

#### ▲철학과

김정형 반기안 이성훈 이지호 박경화  
강일민 서재선 이미정 이치영 강익중  
최승후 허 준 강문숙 김기열 김창욱  
안홍선 양영수 이정우 김재열 이장용  
정성훈

#### ▲종교학과

김지현 손지현 임성욱 바수무쿨 강성운  
방원일 유요한 임동구 김옥성 박병배  
허병명 윤대영

#### ▲미학과

강지숙 우성원 윤창배 이수정 이혜진  
임승연 조성희 홍재원 배경덕 신승하  
오창룡 이정태 고현일 김성원

#### ▲고고미술사학과

고일홍 김동완 김현지 양서운 윤지연  
김지연 배성규 신정훈 함유정 이종욱  
정동선

### ◇사회과학대학

#### ▲정치학과

김경미 김재영 이승민 정영태 정재훈  
최경운 강대현 강현구 박성준 임국현  
임성묵 임우준 장지영 정운재 최효노  
박성준 임종엽 진광호 허 준 김학훈  
송대섭 안영모 이동기 이우진 홍석광  
정원휘 김동원 장정배

#### ▲외교학과

공빛내리 문소현 신수정 윤두영 이진희  
제현정 최우균 백승구 김수정 김민희  
김성진 설인호 이종현 조한석 정구운  
소래섭 권영상 김정훈 김종민 김현수  
엄준호 이승용 정재욱 조주연 한경준  
김지근 김태현 김근식

#### ▲사회학과

김성은 김호민 박정미 백광렬 윤승서  
이연주 최중숙 고영경 조정우 최정준  
김소현 박지영 배철기 안용현 정상민  
김철민 신종필 황의수 강대현 이 준  
김영용

#### ▲인류학과

김은수 장주진 민지영 이창만 임세희  
전은진 김동주 류형선 이민호

#### ▲심리학과

김향숙 백연정 옥수정 유달내 정혜윤  
조경선 최이문 이지영 허 웅 김제중  
김형중 박영희 양승준 오남경 강현정  
박윤환 박은석 손현호 신희진 박용수  
배동산

#### ▲지리학과

박상로 유진웅 이희곤 임대환 최정진  
류호상 이근영 김 현 박천규 최기훈  
최명준 구홍교 김진구 김희원 도형일  
박용연 이상국 정병수

#### ▲사회복지학과

고 은 김용준 김윤경 김진경 서정희  
유현승 이영수 장연진 정은영 정종화  
조광자 채형일 최광석 하정화 안신영  
이동석 박상희 박재만 조성은 강백원  
김 규 이상현

#### ▲언론정보학과

조민지 강지연 김남석 김수현 백현정  
이혜승 최유라 황지은 김승준 김지성  
박정우 한정엽 김한진 성주한 이병균  
김성현 박대순 박상혁 윤상길

#### ▲경제학부

고영환 박종현 감철웅 고 선 구형철  
권동찬 권유이 권정하 김석원 김성엽  
김우람 김경운 류상운 박주영 서현아  
이정택 이선형 이윤석 이지는 이태석  
장혜순 전우권 정성태 정우진 정 일  
조명희 조성익 주동권 최승모 최진원  
홍순탁 홍윤표 송봉주 윤성관 김경기  
김기현 김병국 김원용 김정현 김준근  
김태훈 송준규 양병문 우석환 윤오필  
이대원 이동환 이상길 이정길 이종민  
이희석 임승철 장덕필 정재현 천재호  
허준혁 홍준화 황승태 권오현 김사회  
김영일 김정훈 김진성 복정수 이동호  
정용수 정주용 조영희 조원호 진혜원  
한광호 허윤재 강경호 광경남 김정구  
김종민 박민하 배준범 봉관수 송현철  
엄덕기 오세욱 오준석 장용준 조민우  
조홍종 최형철 이세민 박충현 강승훈  
강지현 김태영 김태현 백정훈 손정표  
이방순 이정민 이정철 이진명 이창민  
곽상근 권용민 김범수 김석우 김성원  
김정호 김준규 김준범 방종권 배성우

선종규 오세문 옥상우 원철용 윤정호  
이세준 이창준 이철택 정길수 정연욱  
정홍순 조장호 조한규 주진우 홍형주  
황희연 고민호 김영준 김유신 김정길  
김정혁 김주화 문성준 박경원 박용진  
오종록 유정석 이동훈 이승규 이지원  
이 현 전계완 조용민 조일상 최기현  
한규진 한규하 한동엽 한원희 권재환  
김학재 박두환 오철우 이수열 정의탁  
정태성 최우혁 황석현 노홍식 장기준  
정인호 김종철 이 원

### ◇자연과학대학

#### ▲수학과

김영진 김영춘 김태혁 윤세진 이승혁  
이진우 최현석 강길태 김용규 김정환  
박정수 배태한 변태창 이경석 이동욱  
임창훈 고방원 권창욱 유임호 조영환  
허형진 손미란 김경국 김다노 박동훈  
박영철 서경교 안재철 이종규 이지용  
임선희 정두섭

#### ▲전산과학과

강종훈 김태형 정임영 홍민형 김택진  
이재우 김형준 신성주 강경태 강도임  
강영상 계획원 구진원 권영근 권택순  
김용혁 김재범 김중찬 김지원 류경민  
민구봉 배재경 손봉수 송길태 안백송  
양정훈 원성재 원재관 윤성의 이기열  
임보권 임희웅 정연오 정은진 정창우  
조성호 조영일 차재훈 최공훈

#### ▲통계학과

이성곤 김남경 이종철 김영훈 신중현  
이상한 황준혁 고상경 김기순 김동욱  
김소연 나옥경 용혜성 임자경 전미경  
정일홍

#### ▲물리학과

강병수 강혜란 구자옥 김비오 김 석  
김아람 김정호 김재은 김하진 박기원  
박용진 박혜윤 소예원 신지철 이규민  
이동훈 이상민 이상욱,이성구 이정훈  
조치오 진호섭 최강신 하한영 허 진  
홍성우 김도균 김옥래 김주인 김창훈  
박종철 윤여찬 채창규 김광무 김성수  
김창환 배준직 이성국 조성일 서강준  
황선호 박해담

▲전문학과

윤영주 이지영 홍성룡 김미희 김창희 박인재 황세현 원치욱

▲화학과

강은주 권은진 김경원 김재민 김 한 김홍민 김희숙 박지훈 박효석 성봉준 신동목 심상희 오경훈 오창률 윤승환 윤영애 윤희동 은창선 이상익 이소윤 임형욱 전종원 조민규 조은석 조지연 조홍관 차상원 최기환 최형길 허경복 광재은 김병수 김태호 박형건 박형진 이명섭 이영희 정 인 조선제 김경락 김대식 김태영 김희수 송현민 윤명한 이동환 서정훈 오종산 이준호 정순교 정 철 정철규 허국영 홍 찬 김영갑 변창기 박봉균 황찬욱 이 연

▲생물학과

노수경 김정호 한호섭 김재영 김정수 송형석 연제현 이현재 연성수 이상준 장재영 정재영 황연아

▲분자생물학과

박성주 박찬중 남원석 김영중 권혁준 김소연 김영욱 김재휘 김혜영 손동현 윤선영 이덕재 이승준 이옥진 임병국 정연보 조진식 최병석 최정준 황성순 문소영

▲미생물학과

백동기 서현석 송지윤 오상택 하주영 장명길 구본원 남상민 안보은 오소영 이성배 이정훈 장영순 전예수 정선영 정세연 진창현 최윤식 최자훈 정지영

▲대기과학과

김언수 김희식 류택상 임혜리 정지훈 신철은 박지훈 이창욱 조현명 진 경 배영준 류기열 손석우 권혁신 김덕진 손장원 이근운 이용우 이현철 전정구 정정철 조홍래 배기훈

▲지질과학과

최은서 이명재 김상근 이창원

▲해양학과

박 훈 심재곤 최성필 김태완 김홍철 오길석 유 훈 육근형 이상익 윤도호 김종원 남상집 남성현 박태욱 송경준 임영화 정병욱 정성기 최성득 최창용 최혁재 한명희 황정연 권형석 박종진 홍준석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김민정 김민운 남가영 박경숙 송금주 염정은 오창순 이정화 이미영 이병희 이선영 이영민 이영아 장혜란 조영아 최선영 김영주 박미향 정금심 홍정미 고은지 김삼미 남경임 류서정 박소연 박윤영 배정연 이라미 이승희 이은아 이은주 한지연

▲의류학과

김수경 김운선 김진영 노주연 류경희 박경두 박유진 신현정 오지원 유예강 이진영 장원준 전치운 정지현 차민정 한현숙 박경숙 이수민 이혜정 박상영 박선영 박은경 박임배 심정원 이무연 이재운 김하얀 최승규

▲소비자아동학과

김지현 김혜선 남경희 손종술 신수경 신은정 신희정 이진경 정유화

▲소비자학과

구본경 김남경 김세라 노혜영 노희승 박설미 박지영 성은희 송미령 안영리 윤정아 전상민 전해은 조선영 박상희 손효진 송선주 이정미 정민진 홍지혜 방세정 엽기훈

▲아동가족학과

구진희 권세은 권영미 민선홍 안인희 이소영 조원지 조지은 최현경 박혜숙

권한숙 박인혜 배은정 이영숙 이은영 전가일 한송이 서희경

◇경영대학

▲경영학과

권창욱 김다니 김병학 김용태 김지산 김진택 김학범 김현수 김현아 나태열 박동운 박상민 박성곤 박현준 반재욱 성태호 손호영 송미선 송승혜 심선엽 안효성 윤정섭 이근우 이문정 이상철 이윤희 이은형 이준상 이지영 이호준 장준양 전홍민 정찬식 정희진 최현필 허 천 홍승환 육영석 성경희 조성택 유경연 고혁수 김규석 김석영 김재현 김태연 김학균 김현주 김형근 문병화 문선기 박중현 반재훈 백주한 변지영 서준오 서효환 안민희 안 옥 양성현 이수진 이은정 이재영 장인영 정국창 정정한 정홍철 한규택 홍종욱 황승현 황은아 황국신 김진우 김민근 김상순 김영욱 김원석 김태엽 남도익 박상현 박응균 서태원 석원호 심병희 오상범 오정민 유병호 이경수 이상재 이우찬 이준경 이희동 인기완 정 한 조만철 지창훈 채준식 강명관 강성구 공승남 김강수 김병하 김보현 김성훈 김정남 김창우 김태목 김 현 노재형 류병우 문대우 박일중 서광욱 송재권 신광현 안성국 안성근 양시형 오성호 이도훈 이상준 이재석 이정환 이진수 임성일 정광조 정부천 정성학 정현택 조영민 주성우 주이환 진상일 진상휘 진준형 진형준 채희석 최지만 최호립 한승수 홍정우 황영관 권오상 김도형 김세종 김정철 김태현 노영호 이원국 이정현 이호창 정근철 조우성 황 습 강성철 고희석 정인섭 조안호

◇공과대학

▲건축학과

강범준 고통완 구본욱 김대우 김복배 김민구 김성수 김영철 김완기 김재훈 김종일 김진호 김학준 김학현 박소륜 박종상 박지호 박지훈 손동인 신은기 오지현 유승현 유시은 윤현식 이강민 이강협 이정아 이규남 이규철 이상원 이용석 이재성 이정하 이지연 이현우 임재한 장갑봉 전제일 조상규 진성민 천명재 최경규 최고식 한태희 전보립 권지혁 김승미 박장우 박희민 서상덕 신정환 이은경 김의식 이민섭 조인호 조재훈 김지훈 노민환 이성재

▲산업공학과

권오성 김경도 김기현 김기홍 김석현 김영국 김용호 김우창 김우준 민대기 박범진 박상진 박형민 변명희 성창환 신준석 윤희진 이상은 이영복 이일수 이상래 이학영 장인갑 전승호 정재운 최유환 하형철 김화중 신혜영 황두기 신흥섭 김지훈 김태완 성정환 정기성 이병철

▲섬유고분자공학과

강문수 김도훈 김명훈 김성우 김태현 류민경 성동기 양찬오 윤형섭 이동욱 이석재 최호섭 김명일 서명경 신진수 안재범 이정욱 정경호 강수정 박상준 이철주 이한주 정원철 김진욱 박상만 이임상 조정환 신시현

▲원자핵공학과

강신규 고현석 김찬수 류진호 박정훈 신동훈 원홍연 윤성찬 이동수 이영욱 이용석 장철중 정재식 천문성 최윤호 한미옥 한태영 홍영걸 서영표 이 석 이용진 장재현 전영무 최신일 이동원 이승동 최범석 성원재 이육경 정종성

이진만 정삼영

▲자원공학과

강종석 김민기 김정윤 남명진 노승환 박승민 송종은 어재경 엄성원 유영률 윤진오 이동권 이동신 장운섭 정용훈 정우철 조혁기 한지영 홍창우 김원태 이석노 강성준 김근미 김태용 송영아 유창석 임홍래 박남수 이종하 이준용 고석민 김길현 방현하 송병찬 장장희 박금집

▲조선해양공학과

강성찬 김경환 김광식 김태현 김동언 김상혁 김성용 김형기 김형섭 도형민 박천재 서동철 손남선 손현락 송병근 안일준 오정근 유영웅 이종무 이혁준 이호원 장현철 정태영 최상복 하윤석 한경화 황성진 황인준 박준길 이경철 강형은 김봉국 김영재 김유철 박영호 송정식 이병일 이정환 조정호 최수용 강연식 강주년 김형근 송수한 황정현 김선학 남성길 최성록

▲토목공학과

권기범 권오정 김진우 김규왕 김선우 김승대 류형근 박민균 박용성 서진환 손민우 유민연 이민재 이승학 임종진 임춘근 정운섭 조상열 조호현 채운병 최영태 한진태 박영근 노성진 박장수 유광수 이재호 최영석 사파하 김병철 김한도 최원석 최재천 김우중 송연호 정의승 이용재

▲도시공학과

구본철 김동규 김진우 문세흙 박민철 박준식 방수석 손정락 심용운 양원모 오재홍 유용은 윤영선 이수원 이준호 전병창 조기혁 진재특 박연미 안내영 오원만 장재일 신종호

▲컴퓨터공학과

고대현 권준호 김광영 김민영 김서진 김소영 김영민 김유환 김준우 김지혜 김형진 박낙규 박범기 박상욱 박일규 박현진 석호식 신동권 신정현 신형주 안병용 윤영원 윤종호 윤진혁 이진호 이상규 이수환 이주희 이지은 이지찬 이호용 장문성 전병필 전상연 전우철 조민경 채종득 최승걸 최예진 최우석 한홍우 허홍진 강남석 김대아 노희승 안병영 윤호빈 임우택 이현수 장성우 한승훈 김완식 김환삼 조인식 최은열 하상유 권상익

▲전기공학부

강민석 강준호 강진우 고평무 박도영 권경준 권근주 권병균 권성호 권재중 권준호 권혁인 김경록 김나영 김동근 김동욱 김동욱 김동은 김동환 김래훈 김병래 김성환 김성훈 김수현 김승우 김영재 김원재 김일구 김임정 김장환 김정원 김중훈 김진태 김창현 김창환 김태용 김택수 김택현 김혜선 김효일 나경석 나길호 남경원 도원록 도재필 문세정 민상원 민지훈 민진원 박기동 박대기 박도환 박성원 박승언 박우길 박은찬 박재형 박종후 박종희 박진우 박철성 박희준 반재준 배형호 백승인 백승준 서원주 서은택 서한석 성진호 송인욱 신인경 신범규 신용민 신이섭 신희철 심영선 심용훈 심재영 심충보 안순관 안재민 양성욱 양지수 오정수 오창민 우경호 유경식 윤성호 이경태 이광선 이동우 이동형 이두원 이선희 이세용 이승열 이용호 이운수 이종호 이주창 이주형 이주형 이준관 이준석 이진희 이현진 이홍섭 이희수 임대현 임상택 임승범 임종우 임창환 장기영 장안수 장윤호 장지훈 전동호 전상범 전세영 전승준 전우재 전유진 전주영

정동혁 정병국 정상훈 정성은 정유철 정일섭 정일업 정해경 정희용 조민식 조용주 조현우 주형준 채희덕 천성덕 최선일 최승일 최영빈 최용원 최윤석 최재원 최재호 최준식 최태섭 탁형진 한상일 허양무 홍동기 홍일성 고재간 권오윤 김동현 김태근 박인혁 박종영 박형범 서정환 서지훈 신경민 신수용 안시형 양종욱 양진복 오광진 유성욱 윤국섭 이경주 이승준 이인범 이재영 이정우 이준엽 이창훈 임성필 전병철 조진홍 차경수 형상철 박준영 김진호 김상완 김성현 김영준 김중철 김진호 김찬호 김태훈 김희철 류재운 박지선 박지철 서동연 안진영 이경진 이상신 이용재 이찬웅 이홍복 정상화 정원창 정진용 정태성 진영규 최영돈 황규중 황용규 김재광 김정욱 김철수 김현식 민범기 박동규 박진기 배채운 백승준 이주영 정진욱 최재호 황영하

▲재료공학부

강상구 강주희 권승원 권순용 김대은 김영욱 김영훈 김용관 김용정 김용조 김정렬 김지희 김혜령 노건배 노상용 박근태 박성봉 박재원 서희상 손석재 손승석 송재원 신용현 은재환 이민수 이영수 이응규 이응제 이장욱 이철흙 이태연 이흥로 전윤기 전은채 정아랍 정진관 정창욱 정현우 진영실 최통령 한상학 광재현 김연철 김용훈 김재석 나경원 양원오 이승훈 임경한 조성훈 권오성 노윤호 오동명 유지환 이용신 전은택 최대중 최민호 김선정 배민영 신동현 진형하 김정훈 김현근 남동현 이범석 장동찬 이진우 차상우 최두천 김대연 김준형 조진수

▲기계항공공학부

강명주 강영석 강호원 고병훈 고후상 박승용 김기수 김기훈 김도균 김상태 김선엽 김용태 김욱중 김의제 김재홍 김정우 김정현 김중우 김주혁 김지수 김진성 김진현 김포재 김형민 나경수 나진욱 남영석 노영훈 노윤종 류덕형 류인상 류한성 명정용 목지원 민성용 박만호 박병진 박상식 박상언 박상진 박성진 박성훈 박용성 박우람 박재현 박지상 박천기 박한서 박한준 박형수 방은석 백동석 백병주 빈준훈 설왕은 설재훈 성현택 손경호 손순일 손지원 신무경 신무현 신상인 신인수 심연섭 안규복 안민승 안창선 양성구 양성진 어선필 엄주상 엄준호 엄태민 여상훈 예병우 오필룡 우진욱 유승한 유인상 윤승석 윤용상 윤재용 윤준식 윤희태 이금진 이길봉 이병로 이병준 이석호 이승재 이승준 이승현 이우성 이우욱 이정호 이재준 이주명 이재원 이한욱 이해인 이화균 이희상 장영하 장재규 전재천 정명훈 정승봉 조승호 조영창 조형준 주종욱 진병주 천두만 최길우 최동욱 최동혁 최병준 최성호 최준호 최형성 한경석 한광훈 한상진 허상석 홍준우 황재연 황재용 카 말 사 를 사하릴 다호리 구민희 김용태 김우경 김현식 안대찬 김동수 김상욱 박상현 박형훈 변재우 서범석 성영민 이상봉 장진석 조옥재 고현석 김창호 나인성 배창대 이관용 김대중 김정익 서준영 엄용환 정우선 홍성철 김성진 박시환 심재철 안인성 양진혁 이민호 이병찬 이승운 이진성 조영학 권덕중 김성수 박상우 이기주 이상호 조수행 천세훈 김태균 박재석 박형배 전상욱 김대중 송명준 안상정 임재진 허진석 김상현

▲응용화학부

강귀권 강태승 구예모 권오중 김규일 김균영 김기수 김대환 김병현 김봉기 김상수 김서화 김선규 김성호 김세훈 김연욱 김재권 김종관 김종만 김진환 김진철 김현수 김형주 김효원 도준상 박민환 박병규 박세영 박재덕 박정진 박정환 박종남 배준상 배준원 백철우 백희정 서순민 서주현 성낙규 성동원 손정현 손태면 신동식 신정철 안성준 양형흙 엄태식 엄현규 위현진 유철희 윤종현 윤한식 이도훈 이동훈 이상화 이성식 이승은 이승준 이신표 이원오 이윤호 이재상 이재성 이정오 이주영 이준협 이진영 이진호 이호우 전희중 청도원 정인석 조승우 조용석 조현호 차승환 최선혁 최승우 최신식 최재석 최재선 최재원 하경진 하정석 한영빈 한철우 황재광 김수길 유성구 정하상 조정상 황세원 강원길 강정호 김보민 김우정 김종민 류은경 박종화 백승재 변상현 송인협 유병동 함병재 문용일 민관홍 박상재 서지원 안재범 이상길 이선근 임성엽 정지성 주지진 지식배 강진규 김진웅 김중욱 김택수 방준하 신현진 원종석 조영성 조윤석 최문호 김근호 백용진 성덕용 성시명 신해성 안효찬 오경석 류원선 박병인 양대준 이종혁 편광현 하정명 박형순

◇농업생명과학대학

▲농학과

김규원 박찬호 배준연 양종진 우미옥 정대진 채수현 공복환 권도안 김준환 김현주 박신희 오지연 이영조 김동암 우종석 이종남 강정식 권순욱 박동국 박종철 서동현 정용균 김종오 최인배

▲원예학과

김희진 박선영 서성근 염인화 오명민 우창하 이태원 황동석 김용민 박경섭 송두일 이성기 정우진 조주형 간태형 이명근

▲산림자원학과

김세영 김소연 김영훈 김 원 이병학 이신정 임한오 전 열 최보연 최은형 최인호 최효성 황인정 이태엽 최윤자 이길훈 이승기 고재덕 노영호 어수형 유희순 이계석 조병화 최봉근 김현철 노용석 정찬훈 함동인 함성명

▲임산공학과

구자한 김호곤 박태현 허용성 박소영 박재훈 이동훈 차준희 박준식 성지훈 이상우 이의식 임현수 정명진 최종윤 하성진 이현대

▲농화학과

류소명 손종문 이한용 정철웅 허 건 김경철 김 진 손종오 임성호 정춘균 홍성준 민종기 신성화 양기용 유진수 정강호 김기영 김형진 남궁현 손태원 이태훈 전재현 정영훈 김명찬 김태경 한광희

▲식품공학과

박종필 윤인자 윤현진 정세현 정운승 최명숙 최승준 한기철 홍지영 오재명 이홍진 임석원 임용훈 조영진 노재필 권해욱 김규용 노광택 백승훈 이용호 이재근 이주혁 이항신 조경웅 김영균 김영찬 강행준

▲농경제학과

서예린 안상기 조수경 김지환 노완용 윤동환 윤상현 조성진 김성훈 김시원 김인수 이동필 추승우 김용형 민동윤 박상민 오세근 임진욱 정다집 이승한 임정환 박창수 김산하

▲동물자원과학과

김영대 김종철 배창준 신용남 이설라

이세영 정창락 한덕희 김대인 오동훈  
이동호 조현철 김택용 김형남 류용곤  
곽성욱 김준우 김 훈 박상혁 송재우  
이강우 이재환 이태현 전현식 정상구  
조수연 김동철 이보람 김상용

▲천연섬유학과

김수창 류한선 배태현 안재순 장광식  
천유정 김지운 김태희 박민정 유수정  
이윤종 조일제 김현달 김현민 박영순  
오광세 우대근

▲농생물학과

김도형 박종호 박효준 성미주 신승원  
오용택 오재민 전옥경 정운경 박성규  
신준성 심수연 이수영 허성욱 송명규  
윤교식 김태호 오대웅 이상훈 이화영  
한현수 현성길 김도형 이병우 박민우  
정신은 장정구

▲생물자원공학부

강상욱 고통영 김형진 박미정 이상훈  
최 원 편기현 박승찬 김보현 방천희  
김성태 김현수 박종삼 서춘석 송인홍  
이유철 이충형 전종안 이주성 김용준  
남기찬 서 민 서자호 손승용 양희성  
이종협 이희영 최원석 현충호 황진성  
김종현 김현호 이운재 이종인 소태섭  
안은수 김경출 김현걸 문서상 백주현

▲농가정학과

안병한 하창식

▲농업교육과

강현상 김민식 김주환 도현재 엄기영  
정상택 정해창 김건중 김현진 오금배  
이종범 양준철 김재겸 박영민 최은철  
최태근 하태규 하석일 한승완 이정권  
김종열 김한필 이승환 임정진 정미라  
구금표 이원석 최용걸 김형민 김동선  
김민수 임경준 경창수

▲조경학과

강민국 노해란 박해룡 윤재식 윤희재  
이승식 이창준 허광만 권이중 김입섭  
김종호 양상동 이경주 이주영 최용수  
정정우

◇미술대학

▲동양학과

고혜영 김시재 박진희 박혜신 박혜신  
엄기원 이상영 장은영 정경심 주용범  
이소현 이병창 전태영 김건일 박재홍  
장 진 나형민 정용국 최경호 허수영  
허태준 고영훈

▲서양학과

곽현정 김정리 박명만 백연아 백주미  
염혜원 윤주원 이현진 임자혁 조선형  
김태정 오병재 이경아 이광서 박미경  
김두진 김상보 김중수 김지수 이준호  
강성일 김동욱 김영민 김정한 김현석  
김호준 안종경 김종철 이정섭

▲조소과

김호영 나재민 박수연 이진영 이호원  
최수형 최지영 김태동 남한석 신년식  
이성수 신민수 이은상 최진기 강현우  
구종일 김기운 최성진 김신일 이대천

▲공예과

이수림 이아람 이지현 곽준희 김미혜  
이영수 이우성 김재순

▲산업디자인과

강성중 김인겸 김진성 박현미 이다미  
이용신 이지우 정진희 최문정 최용진  
홍주욱 김선래 김정민 김현영 박소영  
심경희 여태경 이 준 정자의 김성중  
하준수 김상기 오세현 장광석 채재용  
하진수 김학민 남세우

◇법과대학

▲사법학과

강세빈 권기대 김경애 김길량 김도요

김민정 김지영 박권의 박남준 박재현  
박현정 손 평 신원일 신은영 안정혜  
양 옥 오영종 오태현 우성열 이유선  
이호석 임신권 임진원 임혜진 전기홍  
정욱도 정태용 조원경 조의연 최계영  
최서은 최수희 한원교 김우현 감남규  
구승모 김대현 김도현 김도형 김범준  
김성태 김세진 김예영 김유경 김정아  
김주현 김창모 김한철 류지웅 박재영  
박준석 박진수 박형건 방윤섭 백호석  
성소영 손원일 송기준 신재영 신진호  
안용식 양재호 우몽석 유상민 이기원  
이대근 이승규 이승범 이일한 이재성  
이진웅 이창경 이창희 이현석 이효인  
이효진 임대윤 임 용 전양석 정 원  
조근아 조용래 조형우 진동혁 최성수  
최지석 최진우 허선호 허진성 홍수정  
황우진 이진영 박현석 권순화 김광열  
김수정 박효선 신선경 이용희 장효정  
전진우 정문식 조준호 최우석 최인준  
허 윤 김창권 김동환 배병운 서창대  
장우성 박정호 김정중 조신형

▲공법학과

고은정 고재현 김제성 서경수 이택길  
황성조 황형준 강호규 김규혁 김기선  
김대회 김성준 김시목 김영훈 김용문  
김우석 김태정 김한성 류현영 문정구  
박상욱 박진홍 박창환 선정호 손영국  
송영찬 신명훈 신원국 신재환 심창우  
안 석 양건수 오기찬 오윤석 오태환  
유성하 이경복 이민수 이상화 이승호  
이종민 이창현 임범호 정경호 정수용  
조수정 조승우 조용훈 최석환 최우제  
최지혁 황용하 황호성 황취진 이종혁  
서계원 이진아 권용모 김성호 김지영  
김철호 박홍종 양지정 이언석 이종욱  
조수경 주민철 천성훈 최원탁 현승묵  
홍승훈 강태욱 김중훈 박관규 심 판  
이정훈 조정래 홍민철 김제성 황상식  
김치우 한대균 기현석 배한영 최건섭

◇사범대학

▲교육학과

곽진영 김동진 남창우 노진영 송영진  
윤미영 호사라 윤소영 이상은 양희준  
엄문영 장형석 이현웅

▲국어교육과

구교영 구예리 길주연 김세련 김정원  
김현정 김혜연 김혜희 소정섭 신자은  
양은희 윤희정 이미란 이윤숙 정은영  
정지현 차동민 한수자 송준숙 이선희  
이인숙 이현영 정승연 김영화 민송기  
박진숙 안 혁 이광철 이우용 양한우

▲영어교육과

김연주 김은아 마지현 박선경 신수진  
안혜정 오민숙 오주연 이경은 이보희  
이수미 임영지 조희연 한수형 한지선  
조금희 김서영 김우정 박용숙 박혜림  
이지영 조은진 최서연 이지원 김성우  
김행수 백순도 백진식 오태수 이상원  
이충희

▲불어교육과

김조은 이수빈 정희원 최미로 허원종

▲독어교육과

강진선 김다림 민경서 박예리 손호진  
은지영 주소정 김현수 이의성 곽수근  
류인현 최병호 이재용

▲사회교육과

박강희 박성욱 안소현 이정우 정종희  
문호성 오현주 이영미 장재승 곽한영  
김형준 이태호 이한석 홍남기 김재명  
전제철

▲역사교육과

강현정 김명숙 김종민 박선영 송지선  
신경임 엄소정 유주현 이종숙 정미숙

홍수진 권봉택 권용진 양택관

▲지리교육과

박현진 이재열 조인정 추경모 김민수  
김민정 김태호 최도성 서정훈 이민과  
임광빈 임재영 정학철 조창영 김재순  
이아정

▲국민윤리교육과

강은미 김정희 김현경 이상원 이청호  
조하림 김명자 김병수 김홍진 배진우  
임선희 박상근 정현섭 김명규 김문겸  
김현영 안반기 최문종 김창훈 손진욱

▲수학교육과

권오훈 김윤진 김지영 김현숙 윤효진  
이관대 이수정 전경옥 조상현 주소영  
하은경 황선미 박갑현 박성화 박철민  
위경아 최영희 최정운 김세만 김연주  
김혜정 민영환 정병대 최한진 전종삼  
최경식

▲물리교육과

권현정 김정인 문정욱 박동호 심영선  
양주상 이은주 이재봉 이현호 임재관  
조선희 조정현 최수한 하은선 서민호  
이창미 정유진 주호진 하가영 형남대  
김인구 성기의 한상태

▲화학교육과

국은예 김현정 박소이 박수정 유수현  
이기열 임선심 임희연 김정준 류명화  
소인철 최범규 김용현 이재성 조성태  
채조석 한병우 방진호 신익수 이상익  
정경미

▲생물교육과

박민경 변경자 소문경 양지영 유정일  
이성현 이준태 장지은 정광현 조영희  
강명희 공기연 박근홍 신혜진 이윤정  
이주연 박세희 강필원 박대용 박태환  
원강영 이광범 강봉심 광명해 김선미  
김수기

▲지구과학교육과

김영주 김용선 김진화 류하라 박진영  
신지은 양준모 정의석 황일중 김기상  
윤호중 이종현 이현성 장은정 김경렬  
이강준 인재우 김성근 민병우 박성한  
배정용

▲체육교육과

강민호 강성민 권혁인 김기영 김대욱  
김석원 김성희 김수연 김용래 김정민  
문상희 박성희 박재범 방성준 방신웅  
송상연 송재환 이세원 이원규 이운수  
이태훈 장재원 장창용 정진욱 조대인  
최세일 하재우 한송진 강형길 박동규  
서영준 이상희 홍승기 김기정 김옥수  
김종익 박홍수 신용성 윤종규 이강욱  
정영일 장석정 오충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곽윤주 곽준호 권용만 김준만 김찬란  
김형섭 박기완 박두만 박지는 박태현  
신나리 여상구 오선경 유 희 윤준원  
이양순 이재영 이종복 장예림 정우경  
정원휘 조선아 조은성 홍민기 황인규  
김소현 김일진 김현욱 박종열 성의재  
유준호 이은창 장재영 정권일 홍정주  
김석찬 강지훈 박 철 이현수 김성철  
김종민 김종태 안국준 양대열 염수청  
이완규 조성수 강준희 권기호 김갑수  
김태환 오유식 임명운 조대형 편기용

◇약학대학

▲제약학과

강명심 고원주 김민수 김소영 김유순  
김지는 두민호 문상철 문영진 박연경  
박옥희 박주영 박현우 부성철 손정민  
신정민 심원식 이선영 이원일 이재영  
전승호 정선영 정수미 조영룡 조은영

진현숙 채희성 최옥희 함형덕 신재식  
곽상훈 이지은 최우정 황승립 조경호  
김동화 김태진 손우성 이준엽 정해련  
차혁진 임경찬 박지현 유재현

▲약학과

고현정 김경희 김승현 김은영 김은희  
김지만 김지영 김현진 민유홍 민혜원  
박병덕 박영미 배옥남 백승훈 변원경  
손태경 신은영 양지영 유영욱 유혜현  
이기용 이승진 이은주 이지향 임정은  
임현애 장은숙 전상민 정원주 최경진  
최은선 허연진 홍승령 황성희 황우진  
강민지 권미란 김남희 김미현 박소연  
빈진향 손소정 심종수 장세진 정혜주  
김대중 이충호 이다우

◇음악대학

▲성악과

강은환 김수연 김지영 김현애 남혜원  
박인순 성윤수 양승미 윤정빈 이상은  
이성민 이정민 정현철 조혜원 주경빈  
하수진 김석철 김재화 양문정 임병욱  
정재환 원종운 강병돈 김범철 이병직  
유정환 정용환 서요안

▲작곡과

강혜영 김현수 박희진 안 진 이나영  
정호정 조현화 최진화 김규만 이장렬  
윤성렬 김형철 임주영 임지운 양인용  
김활성

▲기악과

김나정 김선아 김성아 김신영 김재희  
김정미 박지영 박지현 박하선 선정원  
성희경 송주연 신희영 윤수영 이시내  
이종은 이진성 이화영 임남희 조영현  
차세정 현숙이 황경아 황연숙 황인정  
김단비 민유선 유미정 고진영 김서원  
김신희 김혜성 박선민 박수진 박솔애  
박진경 백정선 서아진 송인정 신수정  
오혜승 위지원 이시영 장운희 채경애  
최정아 최혜진 한서연 황순빈 황지원  
황지인 이이나 장인영 김우재 박정호  
한성국 강현주 김주영 서경옥 신주희  
심재연 이상욱 이수진 이승신 이주호  
정수은 권세영 신수영 홍지훈 한길봉

▲국악과

강효진 강효진 고수영 김미정 김은지  
박찬운 서민정 송혜원 신혜인 안영단  
유지연 이안아 이은경 이재운 전은혜  
조윤경 진주은 한선정 허선승 허윤희  
황유선 임종훈 김은경 박진희 손화영  
이은혜 임재경 정서이 한아람 김성주  
신연이 오창준 성상희

◇의과대학

▲의학과

강규식 강은호 강주호 강지호 강현우  
계소신 권병기 권소영 권원경 권종용  
권혁태 김기동 김남주 김남희 김대우  
김대희 김도정 김동욱 김백희 김병수  
김삼열 김성해 김세훈 김세훈 김수산  
김수홍 김수환 김승자 김승호 김연수  
김영성 김예니 김은규 김정우 김정훈  
김준성 김준혁 김지하 김지훈 김진주  
김진현 김 철 김치현 김태완 김태운  
김학재 김 훈 나소영 남상건 노은연  
류효걸 문성호 박경식 박상민 박승정  
박양진 박완범 박재영 박재영 박정근  
박재영 박종철 박종철 박천수 박희권  
백시환 서일범 서재빈 서정원 서정훈  
성문우 성효숙 손영래 송강현 신동훈  
신재경 신희범 심규홍 심병택 심현준  
안 견 안상부 안정환 양기영 양한모  
오경준 오상현 오승원 오재도 우세준  
유원정 윤원재 윤정영 윤진호 윤창환  
이규연 이기현 이도은 이동률 이동욱

이득표 이명철 이민우 이범희 이상림  
이상욱 이상원 이상진 이상훈 이서영  
이성우 이수호 이시은 이연지 이영숙  
이우진 이재건 이재욱 이정하 이주용  
이준호 이지혁 이진아 이창훈 이현주  
이호준 이호창 임경빈 임근영 임병찬  
임열리 임일한 임종엽 장철호 장태훈  
전성욱 전 찬 정상봉 정인갑 정진호  
조민철 조수연 조수정 조재영 차보석  
천희림 최순우 최정석 최중혁 최진석  
팽진철 한호숙 허재혁 홍용상 홍창원  
황대우 황태영 박문석 정규환 정혜승  
최덕형 강승완 김대영 김성완 김양중  
김주영 김지애 김훈보 노낙경 노영주  
박성찬 박성철 박순홍 박영수 박원서  
박형근 배우경 배지영 빈철원 서범석  
서정주 신재원 오정문 유종엽 윤경재  
이상섭 이성원 이응직 이재용 이창훈  
이현철 임우성 장정기 정태욱 정혜림  
조유환 채수진 최대집 최영준 김정민  
홍두호 박인기

◇간호대학

▲간호학과

고현민 구민정 김동욱 김세안 김시정  
김유정 김윤아 김은경 김은옥 김은혜  
김정선 김지혜 김지혜 김향민 김혜진  
김희선 문상희 문혜경 박효원 송승영  
오미영 유두선 윤미현 윤선무 이상민  
이선영 이선영 이유정 이윤경 이은옥  
이지연 이진희 이혜영 인영아 임은옥  
임혜옥 장정민 장창섭 정선영 정애란  
정희정 조은미 차미성 차세란 최세문  
탁현진 한혜수 홍정배 황은경 황인아  
황지영 강민경 강지영 김종희 박순결  
박영미 방성운 양현진 오경아 오희선  
이경민 이미경 이선주 이성미 이연우  
이은영 장명욱 정재영 최윤선 최현정  
최혜란 현연진 서명선 이수영

◇치과대학

▲치의학과

강석만 강석호 강인호 고세욱 구석모  
구승준 김대중 김도훈 김동식 김동수  
김명주 김병성 김상우 김상환 김영란  
김영성 김용덕 김용범 김일장 김준식  
김지영 김진환 김태건 김학민 김현순  
김현우 김형섭 김형주 김형진 김효진  
라성호 박상수 박소영 박은자 박준범  
박창주 박현희 박혜선 배한경 손강배  
송규철 송수복 신혜진 심수연 안병모  
안소현 양준집 양희선 여인성 예성필  
오 영 오정규 왕영수 윤희준 이대현  
이동정 이동훈 이범의 이병철 이승현  
이양규 이영희 이윤실 이재혁 이주나  
이 진 이창석 이 학 이현지 장석우  
장연주 장인진 전세일 전용운 정지철  
조낙연 조영민 조영진 조용정 백지원  
정재화 황대일 김용훈 김종완 김진립  
조현규 진민주 최수진 최용석 최현삼  
한승희 허 욱 홍성민 홍성호 황민성  
황소영 이설미

석사

◇문학

▲국어국문학과

이동순 김현식 김아리 서정민 심우장  
최리영 노로브나 미츠히루 강병조 김윤정  
이민희 이지훈 정길수 정진희

▲중어중문학과

심우익 홍주연

### ▲영어영문학과

김준영 김유석 최효숙 한경민 민병천 이수희

### ▲불어불문학과

변상봉 권인오 조형실 정승훈

### ▲독어독문학과

나승위 명종윤 박지희 이선구

### ▲노어노문학과

변성호 김승문 김연경

### ▲서어서문학과

최철훈

### ▲언어학과

정창욱 최은호 공정혜 이주미 박소영

이승훈 임서현 최진영

### ▲국사학과

고지훈 김제정 김경록 김용태 노관범

장지연

### ▲서양사학과

안효상 안태형 최인숙 강창부 김상수

문수현 이성재

### ▲철학과

정상보 김민철 인교환 허 현 조홍원

오은아 이지영 정유석 박현숙 김보현

송인용

### ▲미학과

김남시 김지연 서지원 황우영

### ▲고고미술사학과

윤형원 홍형우 우정아 최효준 이두희

### ▲사회학과

김철식 조서린 구자혁 주혜진 나진녀

박상현 박종현 서호철 송인주 이정은

장귀연 홍일표 카야모토

### ▲인류학과

안승택 이 선 박혜준 백민정 양선아

이경록 정문영

### ▲심리학과

손영철 이진욱 이정희 안증찬 이한주

조형숙 한수정

### ▲지리학과

최우혁 안재성 최지훈 도 친 김형주

박미라 박정재 신용석 유은혜 최경은

헤이만 오기노

### ▲사회복지학과

강암구 서동명 권지성 김소정 김종주

김지애 류연규 신원우 태재준 하윤숙

### ▲언론정보학과

김영미 이종은

### ▲협동과정

김정환 박 범 조운수 이두희

## ◇정치학

### ▲정치학과

김동규 박기태 이욱근 마야모토 이광희

### ▲외교학과

김민구 성종원 유영수 한민영 홍명선

### ▲협동과정

곽노경 박혜빈 조성원

## ◇경제학

### ▲경제학부

배성준 손주형 전용범 강성원 류승화

강창민 김호중 서명환 송성훈 송은지

심재열 윤정모 이상호 이준협 장지욱

장 철 정준섭 최승문 하희유

### ▲농경제학과

장민기 강혜정 전상곤 황윤재

### ▲협동과정

이현정 최기성 이영주 조영태

## ◇경영학

### ▲경영학과

이일우 한광원 박준서 안중욱 유법종

이승환 고현철 백낙범 안익환 양정아

이승철 한상민 김승준 김태균 오기석

이종관 최영훈 구성민 김상완 김수진

김영길 김 원 김현미 남궁진 박경호

박상준 박재현 박종만 신인규 이성노

이수미 정주은 천상필 최관호 최중기

최형석 한광희 홍성중 아마트 유혜경

고병준 김삼두 김성철 김승룡 김영린

김영진 김용영 김웅식 김장성 김정환

김지훈 김진호 김홍찬 남혜정 류충렬

문동진 문삼욱 박광청 박성주 박재석

서범석 송모현 신재욱 신지웅 안정기

양석준 양상부 유승창 유영화 이동욱

이상열 이상준 이승우 이운석 이장훈

이정기 이철현 이태호 임국일 임기석

전재현 정명훈 정문영 정선구 정 현

조성빈 조영진 차용진 최수연 최효섭

현정혜 황형규

## ◇법학

### ▲법학과

이재범 김정원 지석재 김상준 최승진

진상운 오택림 최종민 이두봉 장경원

김동민 김소연 성범규 성종모 김주영

박성규 심재진 정광진 김 화 객상훈

권건보 감용현 박지현 선승석 윤애림

이재경 정재오

## ◇이학

### ▲수학과

김미애 김민환 김원섭 안재만 윤형석

강병국 강성수 권남희 김경희 김명기

박성훈 백유진 신동준 염지아 오영탁

윤기현 이영민 이인호 이주희 이환기

조석연 조희철 채명주 최인송 한영애

### ▲물리학과

김세연 심명호 강동수 강동우 강병휘

강성호 객규진 권광철 김대호 김상우

김상훈 김주호 김진우 김태환 김현진

노재준 노한진 문인천 박상현 박승호

박정호 박준형 박진규 백 범 백인석

서은성 성민규 소지용 손진영 송영호

안형진 오명규 원창원 유한영 윤미나

윤석진 이덕선 이상희 이수택 이승엽

이승현 이자일 이장원 이주열 이진경

이창희 이충기 이호웅 이흥구 정의정

정현중 정희정 주석진 최원식 한준구

허남정 홍문현 황상득 두이텐

### ▲천문학과

김주한 박 찬 이보원 이종혁 박찬경

이상호 이정덕

### ▲화학학과

김근수 소소목 이임표 이재상 허용석

고석연 권재원 권찬호 김경수 김규섭

김남신 김두영 김병욱 김영실 김옥현

김창환 김학중 김호근 김희조 노영석

민달희 박규찬 박성준 박소향 박수진

박순용 박정현 박정희 박종서 서희민

선석규 성정희 손세희 손준성 송지성

송해선 안용식 양재훈 오지은 유창은

이영삼 이영수 이용실 이 우 임무홍

임종호 임현창 장용구 정유성 정재현

정종구 정 현 정현숙 정희수 조규웅

조수석 지은숙 진영남 최승집 한상오

함은령 홍순혁 황미자 황철희 황한신

### ▲생물학과

임항교 이상호 이다용 권지혜 김민하

김상열 김상태 김성진 김철우 문명순

설정아 어현선 장미경 조민순 조정일

지수선 한진희

### ▲분자생물학과

오주형 객수진 김 숙 김정화 김현수

민상원 박성진 배지현 서태건 안영호

오지연 윤경아 이동훈 이문희 이우진

이호준 이호진 정진주 조윤희 최영일

최종표 한재석

### ▲미생물학과

조홍백 명진종 김동원 김범준 김원겸

김은석 박옥구 박용식 박웅식 백소영

원재준 이상일 이은진 이정순 이정신

이주영 이창진 임상희 전재환 정도영

정재균 정철호 차준석 최지선 최창훈

주여진

### ▲대기과학과

류승아 박선경 유수현 이관희 이준이

하종철

### ▲지질과학과

박혜준 임현수 황현아 강상호 고일원

김용인 김용철 장세정 정 현 진성욱

노경철 이원상 이지민 장상룡 조남대

### ▲해양학과

구분주 이규태 김영호 유상진 이동은

### ▲전산과학과

강지선 권용길 김선호 김세희 김응도

김직수 남범석 민만기 반효경 심대익

안선일 오영배 오재원 윤정태 이배섭

이용재 이우주 이윤정 이은주 정동균

정유나 정춘자 조학수 최준호

### ▲통계학과

박현아 객민정 권승수 김용철 김춘원

남승민 박은주 손 원 송지현 안정연

여유희 오영숙 윤영주 이태원 이현부

전용호 정영은

### ▲협동과정

박장연 한준희 권소연 김선규 김진희

이정현 이종철 장지호 정관호 조명국

한서영 이수화

## ◇가정학

### ▲식품영양학과

황조혜 강경재 권상희 김정혜 도연희

박유경 박은영 서연경 서정희 신동미

이은영 이주희 정수현 정은희 조진아

한인화

### ▲의류학과

김수영 서기숙 김유로 김주연 이경미

김소영 박주현 서수진 양하미 유수진

윤수진 이예영 이은정 이주영 이해원

정지우 정현숙 황유선

### ▲소비자학과

김혜련 박현주 석드보라 이수진 이찬진

정혜경 허은영

### ▲아동가족학과

권기남 김금희 남현미 박시라 박유신

손승희 차승은

## ◇약학

### ▲약학과

김영로 김은미 강미경 김명범 김명중

김선미 김세현 김연숙 김은정 김정선

김정자 김정현 김정환 김정훈 김종완

김지영 김정욱 김현정 김현정 김호준

김희만 류재호 마충재 모주현 박규환

박성원 박성진 박정숙 박진선 박진희

서선영 송진범 심상희 양미영 원형식

원혜영 유영욱 윤희정 아귀업 이동욱

이영선 이은정 이자용 이정미 이주연

이해리 이해경 장문희 장현아 전완수

전현주 정승혜 정연석 정연주 정연주

조소연 조소연 천경수 최민구 최연주

최원규 최혜진 한 희 허 빈

## ◇공학

### ▲건축학과

정대식 구정모 김동진 김성우 김영욱

김의희 김정훈 김주현 김희진 나유성

문종우 박창범 윤지영 이병연 이상수

이소정 이연주 이진영 장호준 조성익

최은석 하태훈 한대희 한선정 김경일

### ▲공업화학학과

송한진 정창렬 고기석 김범석 김영식

김영태 김용만 김한영 김현석 송준호

신영준 양 진 양호정 오준석 오택진

유재원 윤상일 윤성훈 이응기 이재영

이정대 이제철 이춘수 임삼국 임완목

장정욱 정상택 정세규 조진우 한승우

형 훈 홍성진 사명바아

### ▲금속공학과

권장연 김기범 김민철 김수현 김억수

김지환 김창수 나영기 류종호 박 범

박영근 백원종 백진홍 서종현 성현호

손동일 신찬선 안지훈 이상호 이수형

이윤관 이인희 이장식 이종걸 이효종

장계원 장민용 정용환 주장복 최규택

최재영 최호성 하승철 하준석 홍기하

### ▲기계공학과

강성원 강영근 김기현 김동광 김선민

김영일 김정훈 김대성 김현우 김형근

류상진 류형두 박근한 박성원 박종현

박태춘 백준봉 송준원 안 준 양우성

윤상현 음학진 이기철 이동규 이상민

이원희 장경천 장준석 정기현 정대성

정범진 정원석 정인면 정재인 정태원

제종두 조운제 조형제 최병귀 최준혁

하덕식 한방우 한성주 황윤욱

### ▲기계설계학과

강경필 강동화 강주엽 강희석 공상훈

김도환 김문기 김보현 김 석 김영규

김우균 김정환 김중윤 김창주 김철희

김형준 남지근 류재완 박영배 백주훈

신태훈 윤성원 이광재 이기하 이상욱

이용욱 이용훈 이진우 이해성 임 산

장훈근 전순일 전창묵 정인화 조상현

주병운 최기완 최원재 최원준 한진오

허재웅 황인길 황지홍

### ▲산업공학과

설현주 김대희 김범석 김정기 김지호

김창현 도승용 민경진 박진수 서영호

이정훈 천홍구 최종훈 한주만 박부수  
서상혁 정자희 이용길 손정우

◇농학

▲농학과

김성한 박기진 신재훈 이재홍 이진호  
임완상 조영일 최은식 홍석구

▲원예학과

서태철 조정래 김광희 박혜연 백그림  
유은영 유현숙 윤재복 이병구 이운주  
이지니 장운아 전진원 정재아 허진희

▲산림자원학과

임은호 박영대 여운상 홍봉기

▲임산공학과

오정권 이용한 정영재 정재열

▲농화학과

손은규 우상원 이상석 이용상 이은아  
정광호 채 근

▲식품공학과

진세운 구동주 김보천 김선호 김태환  
김희연 박상옥 박찬호 변재연 서정민  
이소진 이주훈 이지훈 이충률 정상원  
진희현 천상희 최정현

▲동물자원학과

김대경 박치호 강완병 강호진 고석영  
고태구 금창우 김덕경 김수곤 박형수  
신대근 신민선 심성수 안희권 이대연  
이상옥 임정현 정원덕 하석호 황일환

▲천연섬유학과

남 진 이화준 정병희 최남석 최중구

하현철 한정희

▲농생물학과

오홍식 강용성 김정건 노희술 박상근  
서정민 손황배 이도우 김진영 박상옥  
손영수 김진환 신현경 심희진 조창섭  
최현정 홍혜경 이규석 이학로 조승희  
한유경

▲협동과정

강영임 음병욱

◇수의학

▲수의학과

황용규 류승호 안경아 안용주 곽형일  
구혜정 권동혁 김완희 김정태 서근석  
서재훈 서훈수 오승현 유종현 이동원  
이병희 이원우 이충호 임광택 임종희  
정수연 정지운 채영진 최호정 허 권  
황경택 김 용 이용화

◇미술학

▲동양학과

칼라스

▲서양학과

한생근 김형석 윤영섭 이광호 최미강  
최옥수 이문주 김태진 류지선 송정은  
한계륜 구경화

▲조소과

노 준 김지인 권대훈 오창근 전윤조

▲공예과

문나리 강정원

▲산업디자인학과

최병일 강경화

◇음악학

▲음악과

박혜승 최정아 강유정 김재일 남윤경  
성지연 이소민 이은숙 정효성 최해진  
하재학 박은옥 오다미 김경아 김귀염  
김민정 김창곤 류재원 박재은 박혜진  
신혜영 어정현 유희정 이정연 임희수  
정혜원 한윤정 김세중

◇교육학

▲교육학과

육숙자 김종순 하화주 전정운 소은주

이호찬 김 용 박수정 송경오 박경연  
박춘성 박유상 김성식 김현진 박은주  
원성욱 최종근 김세리 한성욱 김수미  
이동혁 문수정 임효진 조애리 이명경  
박현규 김승주

▲국어교육과

정선화 서명희 류홍렬 이성희 이주영  
채주희 유순희 강민경 김은성 주세형

▲농업교육과

이한규 강권영 정진철 허영준 박인태  
강수정 고운미 김정섭 문정훈 이채식

▲영어교육과

이영선 손미경 이해원 김아련 안경자

▲불어교육과

임성연

▲사회교육과

천희완 오승택 전쌍식 조국남 박인옥  
은지용 최정운

▲역사교육과

박종선 최성환

▲지리교육과

최규학 노용희 조창래 신우철 송형세  
유수현 황병원 이은실 전수경 신정엽  
소 연 김은정 김은희 엄정훈 이우평  
권영락 김숙진 신영규 이찬주 정선희  
최은영

▲국민윤리교육과

이은규 김선희 김영은 도홍찬 윤기용  
이혜경 묘리오까 김현수 조승연 조진호

▲수학교육과

문광호 고일석 박경하 안준화 고정화  
공정택 권경렬 권석일 이주안 장재효

▲물리교육과

김현진 박종웅 이정원 김기호 백찬욱  
이인호 정순신 최재혁 허 용 황인성

▲화학교육과

고미경 김창민 민혜진 박승애 성수미  
안순애 유미현 최경인 한미영

▲생물교육과

조현재 박순혜 오선영 오세경 이선화  
정혜근

▲지구과학교육과

김수명 이수정 서기원 양정은 황석규

▲체육교육과

문광현 백창선 김재원 이영국 김근수  
김용운 신학수 우재홍 조남용 최시호  
강영구 김기탁 김종희 박운정 박정태  
신성훈 양문선 윤영길 이승배 최성훈

▲음악교육과

정은경 신혜경 박남순 문 진

▲미술교육과

서전복 이운선 박민식 정수기

▲가정교육과

채현수 길애진

◇의학

▲의학과

정승용 정인목 김승기 노영진 배진호  
이원용 박성식 이상일 강창현 권정혜  
오성일 강동화 강성욱 강현승 강현재  
구자성 권복규 권오상 권태영 김경욱  
김기태 김대연 김석우 김석형 김수정  
김수진 김장한 김재용 김재용 김지목  
김지애 김태호 김호진 김홍빈 김홍주  
김희석 김희영 나송이 남우동 박경란  
박병순 박서영 박선원 박성신 박소연  
박영진 방희재 배수인 서중배 성창규  
송재우 신기철 신 수 신형익 심재훈  
양재석 양희영 연태진 오승욱 우광훈  
윤선희 윤종민 윤창호 이경우 이경원  
이규훈 이상철 이승주 이운종 이인식  
이재영 이재철 이주호 이준성 이준아  
이준호 이진호 인경수 임대정 임재준  
임춘수 장 광 장근아 장운환 장재원  
장진영 전주홍 정기현 정영미 정의상

정재훈 정진화 정 현 조광리 조영갑  
조용근 조은운 조진호 지병철 진호준  
차훈석 천정은 최경효 최우진 하지현  
한은택 한태희 허우성 허재학 허 진  
홍성환 홍혜경 황용철 황지환 김인걸

◇간호학

▲간호학과

신현주 이정립 김숙영 윤선옥 이주현  
김은만 김현숙 백환금 안선영 유은경  
이수정 이영희 조명숙 공은희 정성희  
현진숙

◇치의학

▲치의학과

윤정숙 이봉호 박상현 송기용 이강운  
이승훈 김은관 김형근 송노현 신 일  
정기영 감동훈 강창우 공형규 김기홍  
김봉애 김양수 김정은 김태형 류주희  
명 훈 민경만 박상욱 박수진 백세미  
신승운 신지연 심미영 안형준 안홍균  
오순이 유종욱 윤미진 윤종욱 이병철  
이상구 이상민 이상진 이상철 이신원  
이원영 이원호 이윤석 이정민 이종기  
이준노 이희용 임동혁 임종안 장수경  
전이주 정기수 정미향 지석호 최낙원  
최은정 최정원 한송이

◇보건학

▲보건학과

이도희 오혜정 박운주 조영미 김한규  
서문석 서수경 강길원 김미경 김미정  
김지운 서상연 구상진 김유정 박재경  
배성운 이원영 이진이 장숙량 정경래  
조은정 조희숙 홍은경 배혜진 천희란  
김상욱 김영재 양서영 임완수 김민규  
이재현 임양진 조재문

▲환경보건학과

오종식 김신범 김민지 김형수 유정아  
최동희 김태선 고영림 곽현석 김형길  
김혜진 성지동 오세희 윤희정 정효준  
천명선 최상준 한인규

◇행정학

▲행정학과

이동철 이상호 김찬영 나양하 변창률  
김기용 이상웅 황석태 전본희 이명규  
양종삼 이종필 정태욱 손혜숙 안창국  
이창호 임은주 장웅조 강성팔 장난주  
김재금 이형환 김귀영 김재준 김홍재  
박석희 손덕환 오지태 이은애 이재호  
조병훈 최천근 최태현 황혜신

▲정책학과

임성철 최호천 양영철 최성락 임인택  
김철희 황인규 강상욱 김희방 박완기  
송경희 심준보 안병준 이선주 이주형  
김사우 김성택 박찬식 백현관 심재규  
이승환 이영찬 이인희 이주섭 이환성  
장정교 최영희 한철수

◇도시계획학

▲환경계획학과

석영철 이경희 이상훈 이경훈 김혜성  
김남철 김원규 안선희 오성진 윤진수  
고동욱 고준호 구소연 김동영 김세원  
김승규 김영우 김재영 김천곤 박순호  
박인권 배정환 서해선 신지혜 양승철  
여형범 옥기영 이소영 이윤아 장병훈  
장운정 정유진 최진영 최충익 최태효  
황상규 황석만

◇조경학

▲환경조경학과

공경식 김지수 박병규 박선호 양성민  
이미정 장갑수 정수진 차수영 홍경규

▲생태조경학과

김태훈 권경호 김현규 백은주 신재훈  
오민근 이상민 이원희 장혜영 조동길  
조승만 주희영 허대영

박 사

◇문학

윤용선 채호석 이윤하 임주탁 박종성  
이명찬 조해숙 정충권 정선태 신지영  
이정재 엄용희 이순구 주미사 이해은  
임재동 이재원 강미란 홍택규 문수미  
강 신 노태돈 나희라 최연식 신병주  
송호정 윤대원 노서경 정기문 최종택  
장홍근 오건호 김귀옥 김남재 김은정  
조혜영 이상균 진재문 조성희 김영욱  
홍향숙 민하영 신기영 이정화 김방현

◇철학

엄연석 조남호 신정근 송현주 이용주  
김일권

◇정치학

김구현 김주환 김근식 최형익 김현철

◇경제학

김홍중 임일섭 정진호 엄미정 유승훈  
김병률

◇경영학

김주일

◇법학

김병화 김재훈 김홍영 오동석 전경근  
고문현 송기훈

◇이학

권오인 장 건 강승필 반준화 오혜경  
윤정환 최성우 권대성 문환표 안홍주  
오병권 염용진 정경훈 조진우 박완규  
공기정 김형찬 노금환 고현성 송재준  
안호석 정창욱 최홍석 하연수 홍재완  
안 도 박정영 안재석 최영진 김배환  
박상현 민경식 서영덕 가재진 송승완  
이민형 강운호 김갑식 김길중 황완규  
김지환 송민욱 김대건 김지희 박은정  
최병현 김세년 박경찬 성인식 백성희  
김은경 유성운 정원진 정용수 조유희  
홍순규 김수정 오상택 이미선 서명석  
정현숙 김종근 이석훈 임창복 신은영  
강래선 박명길 김동호 노은하 김정환  
구자현 최승훈 홍의석 이경오 하일도  
강위창 이종현 박영주 송효남 안윤진  
조성희 박성혜

◇약학

서동욱 임혜경 박은정 신찬영 이재우  
윤종명 강건욱 김희진 정재경 하태길  
한계수

◇공학

천의영 이규진 권순정 정기철 우신규  
김낙중 최윤기 김재석 이상호 이수열  
김석환 최준환 양지훈 박성언 길덕신  
원영목 최이식 김동찬 김희준 유 천  
임인건 사용철 조재걸 최창호 이용규  
김현석 문종신 박철규 이재관 홍진웅  
곽신웅 김진홍 노상도 손 영 우종원  
이강수 김규만 이재선 조인행 한영현  
김문수 신상문 김기태 김철영 정대영  
송해규 정이운 김상철 임정렬 장승순  
성하수 홍보기 김찬수 송창록 선우식

주한용 신동주 오영국 김상호 이희도  
조재선 장영철 김태혁 김택곤 설순지  
신성운 장택수 성홍근 이심용 이장현  
김성순 이병철 박호기 오병철 정원무  
차수원 최명수 여인호 이재형 임창균  
김성홍 강승일 어영담 김정호 이준호  
한창현 아쉬라프 김형진 여주상 조병욱  
홍무호 노형준 안성모 최은석 김태진  
이재범 임용준 김동규 이상원 김태현  
최용진 박정우 백성준 백승원 김희욱  
윤찬근 변대석 김성준 맹경무 이문규  
금기일 박병건 이주일 최병갑 김종식  
박규철 이종민 박용두 최석순 이재화  
박영근 김대식 조남건 정종철 황상일  
최형석 박창석 김태현 김두하 박원규

◇농학

김관수 원용재 소은희 이지원 고관달  
황환주 문두영 강병철 조후남 주광영  
전기성 조덕현 최원실 김광철 강 욱  
노길봉 김정구 김찬섭 금영수 부용출  
홍희도 김성애 박현국 곽보연 박명수  
김용구 배극환 신동은 박철진 이현정  
정동기 김종덕 함준상 고 주 이승돈  
한정현 김동순 이홍식 이대원

◇교육학

이춘식 안상근 김정주 박덕병 송용섭  
김현수 임정훈 최영신 김광수 여태철  
최은영 노은희 유영희 박형준 권장희  
오석중 서동엽 윤혜경 이정노 권혜련  
최선영 김수현 민동주 이애주 미주루  
김광호 송강영 이춘만

◇수의학

김본원 소병재 박선일 이종환 최양규  
박철범 손성완 이국경 김태완 문병석  
우흥명

◇의학

전형식 김종일 정영철 조마해 안용민  
이남용 하태준 강덕현 김형진 배종면  
안중모 정경천 강재현 김송철 김한수  
백선하 선우성 송 현 오원일 전종범  
강승백 김영균 김원석 김지운 김지혜  
김호철 박훈기 서국희 송정환 유항중  
윤용하 윤종현 윤태진 이중의 이해숙  
임명관 장용주 정일영 최정운 하철원  
한혜승 장은화 고광철 김재규 김재준  
김주성 김태경 김한성 문우경 박용범  
박윤규 박재경 박준동 서지영 성인호  
손영익 안재훈 양석균 양운선 오승준  
유문집 윤영석 윤자복 이가영 이승준  
이승현 이태승 임기환 장봉순 전덕규  
조현성 주영수 최성준 최은화 최익현  
하범준 함돈일

◇간호학

권인각 최은옥 민혜숙 최정숙

◇치의학

송경원 백광우 안중철 김정혜 변호영  
손영화 심성규 정기영 고병연 김성룡  
김재희 김정화 류경희 문은재 문재은  
박성원 박정희 서병무 이승호 이영국  
황영재 계승범 곽정민 송연희 안순찬  
엄승희 오승은 이인복 임용식 최수영  
최원철 곽재영 박준범 이용무

◇보건학

박은옥 전옥경 천성수

◇행정학

김종성 권오철 김명준 한인섭 박영호  
김태경